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論文

마립간기 신라관(新羅冠)과 신라정치의
상관관계 연구

A Study on Correlations between the Silla
Crown and the Politics of Silla during the
Maripgan period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김정희

마립간기 신라관(新羅冠)과 신라정치의 상관관계 연구

지도교수 전호태

이 논문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김정희

金貞熙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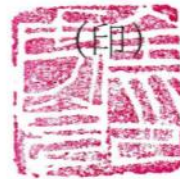
審査委員 이종서



審査委員 신용철



審査委員 전호태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8년 12월

국문요약

마립간기 신라관(新羅冠)과 신라정치의 상관관계 연구

김정희

新羅冠은 마립간기라는 특정한 기간에 제작된 대관(帶冠)으로 동일한 형식의 금속제 관을 완성하지 못한 고구려·백제·가야와 달리 신라에서는 같은 형식의 관을 왕족을 비롯한 일정한 지배계층이 착용했다. 신라관이 가진 이러한 특성은 그 관을 탄생시킨 당대 신라 지배층들의 지배이념 및 사회·정치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신라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원 및 장식 기법에 관한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신라관의 정형화과정 및 의미를 신라정치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립간기 신라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2가지 요인으로 고구려와의 관계 변화 및 김씨왕권의 강화에 주목하였다. 고구려와의 관계 변화에 따른 시기별 신라관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를 주도한 김씨왕권의 강화를 중심으로 신라정치의 일면을 함께 고찰해 보았다. 이에 마립간기 신라관의 변화과정을 크게 3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신라관의 특징과 정치적인 배경 등을 시대별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시기에는 신라관이 처음 출현한 시기로서 고구려적인 양식의 신라관이 만들어졌다. 이는 마립간기를 성립시킨 김씨세력의 성장과 내물·실성마립간 시기 신라와 고구려와의 긴밀한 밀착관계와 관련이 있다. 김씨세력의 성장 배경에는 황금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김알지신화에 반영되었으며 금관으로 상징되는 마립간기 황금문화의 배경이 되었다. 또한 고구려에 대한 과도한 의지 및 신라내부의 세력 다툼은 고구려에 대한 신라의 종속을 가속화시켜 고구려적인 신라관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두 번째 시기에는 고구려적인 색채를 벗어나 3단 수지형입식이라는 신라양식 신라관의 기본 뼈대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지방에 신라식 금동관을 하사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신라관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황남대총남분 출토 신라관들로 양식의 변화상을 한 눈에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라관의 변화상은 이 시기에 추진된 눌지마립간의 자립화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눌지마립간은 안으로는 분열된 김씨세력을 재결집 시키는 동시에 유력 지방세력 및 박씨집단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김씨 왕권강화를 가속화시켜나가고, 밖으로는 백제와 나제동맹을 체결하여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대항하여 신라의 자립화를 이룩해 나갔다.

세 번째 시기에는 3개의 직각수지형입식에 2개의 엇가지형입식을 갖춘 신라금관이 만들어져 신라관의 정형이 완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와 결별한 신라가 고구려와의 전쟁대비를 위해 전시체제를 운영하면서 각종 개혁의 단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시조사당 친사 및 신궁설치와 같은 제의행사들은 김씨 왕권을 더욱 강화시켰다. 필자는 소지마립간대에 나타나는 신궁설치를 비롯한 빈번한 제의행위들에 집중하여 제의와 관련된 금관의 기능을 추정하면서 신라관에 표현된 도상들이 실은 김알지 신화를 표현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녹각형 입식’에 대한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신라관의 전체적인 변화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신라금관은 각종 제의 시에 착용되어 김씨왕권의 정체성 및 우월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마립간 초기 고구려의 종속국가로 전락했던 신라가 이제 고구려와 맞설 수 있는 당당한 국가로 성장했음을 드러낸 매우 정치적인 관이었다.

본 논문은 시기별 신라관의 변화과정을 통해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 및 변화가 신라관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주어 신라관이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졌고, 그에 따른 관의 형식 또한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신라관은 마립간 시기의 정치적인 요구들을 시기마다 잘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감당한 매우 정치적인 관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는 신라관에 관한 종래의 양식 위주의 미시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신라정치라는 좀 더 거시적인 틀에서 신라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신라관의 양식 및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마립간, 신라관, 신라금관, 금동관, 마립간기 신라정치, 내물, 실성, 눌지, 자비, 소지, 박제상, 금동관의 지방사여, 황남대총, 서봉총 금관, 김알지 신화, 신궁, 김씨족단, 마립간기 대외관계.

《 목 차 》

머리말	1
I. 신라관의 출현과 마립간기의 성립	3
1. 신라관의 출현	3
2. 마립간기의 성립 배경과 황금	8
3. 내물·실성마립간기의 신라정치와 고구려의 영향	11
II. 신라관의 양식변화와 자립화시기 신라정치	15
1. 3단 수지형 금동관의 성립	15
2. 눌지마립간의 자립화정책과 왕권강화	21
III. 신라관의 완성과 제의정치	26
1. 신라관의 완성과 함의	26
2. 자비·소지마립간기의 체제개편과 제의정치	34
맺음말	38
참고문헌	40
Abstract	44

《 표 목차 》

《표1》 신라관의 출토 현황①	19
《표2》 신라금관의 형태 및 편년	27
《표3》 신라관의 출토 현황②	28
《표4》 마립간기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변화 및 신라관의 발달	33

《 그림 목차 》

<도1> 탑리 금동관	3
<도2> 복천동 10·11호묘 금동관	4
<도3> 황남대총남분 은관	4
<도4> 청암리 금동관	5
<도5> 고구려 관모장식(요녕성 박물관)	5
<도6> 고구려 관모장식(중앙 박물관)	6
<도7> 고구려 소골관(개마총)	6
<도8> 태왕릉 출토 금동관	6
<도9> 복천동 1호묘 금동관	15
<도10> 황남대총남분 출토 4점의 금동관 도면	16
<도11> 황남대총남분 금동관 파편	17
<도12> 진파리 7호분 고구려 금동장식	29
<도13> 서봉총 금관의 새장식	29
<도14> 금관총 관모	30
<도15> 금관총 금제관식	30
<도16> 서봉총 금관의 측면	30
<도17> 傳상주 금동관	30
<도18> 지동 2호 금동관	30

머리말

금은 쉽게 녹슬거나 부패되지 않는 특별한 속성으로 인해 흔히 ‘영원한 생명’, ‘불멸’, ‘건강한 기운’ 등을 상징한다. 또한 ‘빛’, ‘권위’, ‘최고’라는 표상도 함께 지니게 됨으로써 금관을 비롯한 다양한 장신구 및 각종 기물 제작에 사용되었다.¹⁾ 한 나라의 유적과 유물의 특성은 그 민족의 의식구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양상으로 민족의 장신구사를 보면 거기에 표현된 정서와 추구하는 미의식을 알 수 있다.²⁾ 특히 복식의 한 부분으로써 冠은 중요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착장자의 신분이나 역할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동일한 형식의 금속제 관을 완성하지 못한 고구려·백제·가야와 달리 신라에서는 같은 형식의 관을 왕족을 비롯한 일정한 귀족계층이 착용했다.³⁾ 신라관이 가진 이러한 특성은 그 관을 탄생시킨 당대 신라 지배층들의 지배이념 및 사회·정치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지금까지 금관에 대한 관심은 주로 조형적인 요소의 분석과 금관의 기원 및 용도 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⁴⁾ 또한 황금문화 및 금관의 기원을 중앙아시아의 황금문화에서 찾는 예가 많아 신라금관과 직접적인 연결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고신라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된 금속공예에 보이는 북방요소에 대한 선학들의 연구는 상당하다.⁵⁾ 특히 최근에는 신라금관을 중심으로 신라의 문화를 유라시아를 통한 거시적 문화교류와 지역변용의 한 현상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으며,⁶⁾ 심지어 서역계 문물을 확대 해석해 신라왕족의 동로마 기원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⁷⁾ 이렇듯 고대사학계나 고고학계에서 기마민족의 이동설까지도 제기하며 독특한 신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만⁸⁾ 이들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적인 격차가 너무 크고 유물간의 비교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신라의 금관 및 황금문화의 기원을 직접적으로 고구려, 간접적으로는 그에 인접한 선비족 왕조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입은 직접적인 인적교류에 의한 소산이라기보다 중원의 왕조를 매개로 한 교류의 산물로 해석하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⁹⁾ 이에 필자는 신라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신라금공문화에 끼친 동서문화의 교류적인 측면도 염두에 두되 그보다 직접적인 원인, 특히 중원왕조와 신라를 매개한 고구려의 영향력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신라관을 성립시킨 당대의 내재적인 요인으로써 김씨왕권의 성장에 주목하고 신라관의 발달 및 변화과정을 신라정치라는 큰 맥락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신라금관 및 장신구의 위세품적인 성격과 관련된 신라관의 정치적인 기능에 관한 연구들이

- 1) 권영필, 2015 「실크로드와 황금문화」 『황금의 나라 신라와 실크로드의 관계사 조명』 8쪽, 제 9회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 2) 조진숙, 2004,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장신구에 관한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17집, 고구려발해학회.
- 3) 이송란, 2002, 「신라관의 성립과 시조묘 제사」 『미술사학연구』 235권, 6쪽, 한국미술사학회.
- 4) 이송란, 2003 「황남대총 신라관의 기술적 계보」 『한국고대사연구』 31집, 한국고대사학회.
이한상, 2006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김병모, 2012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이경희, 2009 「고신라 금속공예에 대한 연구동향 - 고분출토품을 중심으로」 『CHINA연구』 6집,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 5) 권영필, 1997, 「신라공예의 대외교섭」 『신라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김원룡, 1979 「신라금관계통」 『조명기박사회갑기념 불교사학논총』 동국대학교 출판부. 이난영, 1991, 『경주와 실크로드』 국립경주박물관.
동, 2000 『한국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송란, 1994, 「신라고분출토 공예품에 보이는 외래요소의 연원 - 식리총 금동식리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03호, 한국미술사학회.
- 6) 민병훈, 2008 「북아시아와 고대 한국문화- 신라금관의 북아시아적 요소를 중심으로」 국립경주박물관 국제학술심포지엄 ‘신라 문화와 서아시아 문화’
- 7) 요시미즈츠네오, 2002 『로마문화왕국, 신라』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 8) 최병현, 1992,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 9) 이한상, 2007 「신라분묘 속 서역계문물의 현황과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45집, 한국고대사학회.

나오고 있으나,¹⁰⁾ 신라冠의 변화과정을 신라정치의 변화라는 큰 맥락에서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3개의 직각수지형 입식에 2개의 엇가지형 입식¹¹⁾을 갖춘 신라금관의 정형이 완성되기까지 신라관이 몇 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신라관의 변화과정에 끼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은 거의 없다. 신라금관은 마립간 시기에 조형된 경주지역의 대형적석목곽분에서만 출토되는 특정유물로 신라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금관을 단순히 조형의 분석이나 기원에만 치우쳐 바라본다면 신라금관이 가진 진면목을 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신라관의 발달과 함께 금관이 만들어진 시기, 즉 마립간 시기의 신라 정치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신라관의 양식변화에 끼친 내·외적인 추동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신라관, 즉 신라의 금·금동관이 조성된 시기의 내적인 추동원인으로 마립간기의 왕권강화 과정 속에 개입된 정치운영의 원리와 함께 대외적으로 고구려와의 관계 변화에 따른 대응들이 신라관에 끼친 영향 및 변화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라관의 성립과 발달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축의 하나로 고구려와의 관계를, 또 다른 축으로 김씨왕권의 성장을 설정하였다. 이에 마립간기를 고구려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3시기로 구분하고,¹²⁾ 각 시기를 거치면서 신라관의 양식변화와 정치운영의 원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발달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¹³⁾

10) 이한상, 2012 「신라 장신구의 정치적 의미-경주 황오동 41호분 모관 발굴에 즈음하여」 『내일을 여는 역사』 48, 내일을 여는 역사. 동, 1995 「5-6세기 신라의 변경지배방식-장신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33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김용성, 1998 『신라의 고총과 지역집단-대구·경산의 예』 춘추각. 박보현, 「위세품으로 본 고신라사회의 구조」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입식의 명칭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중앙 3개의 입식은 직각수지형, 맞가지식, 출자형 등으로 불리며, 양쪽 2개의 입식은 녹각형, 엇가지형 등으로 불린다.

12)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마립간기를 고구려와의 관계 변화를 위주로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던 시기, 눌지왕의 자립화 정책으로 고구려에서 벗어나려는 시기, 고구려와의 전 시체제로 완전히 돌아선 시기로 크게 3시기로 구분하였다.

13) 신라관은 원래 대관(帶冠)형식의 관, 고깔형태의 관인 관모, 관모장식등을 아우르는 모든 신라의 관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지면과 논문 구성상의 한계로 신라관의 논의 범위를 머리띠 형식의 관테가 있는 신라대관으로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I. 신라관의 출현과 마립간기의 성립

신라 마립간기는 대개 내물마립간(356-402)부터 실성, 눌지, 자비, 소지마립간(479-500)까지로 약 150여년 정도의 시기를 일컫는다. 이 시기는 김씨왕권이 사로국을 통합하고 대외교섭에서 단일 창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진한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등 중앙집권국가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던 시기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북방의 세력변화로 동북아시아의 복잡해진 변화에 편입하여 대응해 나가면서 신라사회의 정치·문화적 수준이 발전을 거듭하던 시기였다. 이 장에서는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신라가 내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던 마립간 초기, 즉 내물마립간 즉위년(356년)으로부터 눌지마립간의 즉위년(417년) 시기까지 출현한 신라관의 형태와 초기 신라관의 출현 배경이 되는 김씨마립간의 성장 및 고구려의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신라관의 출현

신라에서 관테를 두른 대관이 처음 출현한 것은 마립간초기로 볼 수 있다. 이는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로 신라대관이 출토된 신라고총들의 편년과 관계가 있다.¹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관으로는 경주의 황남대총남분 은관, 지방에서는 복천동 10·11호묘, 의성 탑리 1곽 금동관을 들 수 있다. 복천동 10·11호묘, 탑리 1곽 고분들의 연대는 주로 4세기 4/4분기¹⁵⁾나 5세기 1/4분기¹⁶⁾로 비정된다. 이러한 편년은 마립간 초기인 내물과 실성의 재위기간과 대체로 일치한다. 황남대총 남분은 연구자들에 따라¹⁷⁾ 5세기 1/4분기¹⁸⁾ 또는 5세기 2/4분기~3/4분기 전반¹⁹⁾으로 추정하나 본 논문은 금공예품을 기준으로 하는 편년인 5세기 중반설을 따른다.



도1. 탑리 금동관

다음은 시원적인 신라관으로 꼽히는 세 개의 신라관의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금동관이 발굴된 의성 탑리고분은 신라식 변형적석목곽묘로 신라에 일찍 편입된 조문국(召文國)과 관련이 있다.²⁰⁾ 탑리1곽 금동관은 금동판을 잘라 대륜을 세우고 그 위에 3개의 입식을 세운 형태인데, 긴 세 개의 입식은 가장자리를 연속하여 자른 다음 5-6번 비틀어 마치 새의 깃털처럼 만들었다.²¹⁾ 그런데 금속판을 잘라서 꼬아 만든 장식이 고구려 관장식에서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이 관의 계통이 고구려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입식의 상부는 나뭇잎 모양의 문양이 투각되어 있

14) 지역마다 고총의 축조 양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지방에서 적석목곽분이 조성된 곳은 보통 친신라 계열이나 경주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세력으로 해석하며, 그 외에 나타나는 다양한 묘제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한상, 이희준, 김용성의 연구 참고.

15) 이희준, 2008, 『신라고고학 연구』 159-160쪽, 사회평론.

16) 이한상,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97쪽, 김영사.

17) 이희준과 김용성은 신라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편년을, 이한상은 주로 금공품을 기준으로 편년한다.

18) 고분의 편년보다 금관이나 금동관의 제작시기는 더 빠를 것으로 본다. 즉 제작시기와 하사 시점은 고분이 조성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 이희준, 앞의 책, 159-160쪽

19) 이한상, 앞의 책, 97쪽. 김용성, 2010 「적석목곽묘와 적석봉토분의 이해」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95쪽, 학연출판사.

20) 이한상, 2010 「의성지역 금공위세품의 제작 기법과 연대」 『한국고대사 속의 召文國』 264-265쪽, 경북 의성군·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1) 이송란, 2016 「의성 탑리고분 1곽 출토 금동관의 계통과 상징성」 『한국고대사 탐구』 24집, 한국고대사탐구학회.

는데, 이 문양은 고구려에서 많이 쓰이는 삼엽문 장식을 대체한 것으로 이해된다.²²⁾

북천동 고분군에서는 총 3점의 금동관이 출토되어 부산 동래지역이 비교적 일찍 신라에 복속되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북천동 10·11호묘에서는 초화형금동관이,²³⁾ 1호묘에서는 3단 직각수지형 금동관이 출토되어 신라관의 양식변화와 함께 부산지역 정



도2. 북천동 10·11호묘 금동관

치세력의 분화와 관계하여서도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 10·11호 출토 금동관은 세움장식의 결가지 모양이 다른 금동관과 차이가 있다. 즉 가장 낮은 금동관의 결가지는 직각에 가까운데, 이 관은 자연수지형에 가까워 다른 금동관에 비해 고식으로 생각된다. 특히 세움장식 꼭대기에 투조된 삼엽문은 고구려 양식이기 때문에 탑리 1곽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⁴⁾



도3. 황남대총남분은관

다음은 황남대총남분 출토 은관에 대해 알아보겠다.²⁵⁾ 대관 중앙에는 오각형의 산(山)형 관식이 있고, 좌우에 새 날개 모양의 조익형 입식이 달려 있다. 꼬임기법이 사용된 깃털장식은 조익형입식의 바깥 쪽 테두리에 베풀어져 있고, 대륜과 입식에는 보요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특히 산자형 관식이 대관의 중앙 입식으로 등장하는 점이 주목되는데, 산자형 관식은 고구려 소골관에서 나타나는 요소라고 한다.²⁶⁾ 따라서 황남대총남분은관 역시 고구려적인 양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께 출토된 금동관 1점 역시 이 은관과 같은 형식의 관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3개의 신라관은 얼핏 보면 공통점이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아직 신라관이 정형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되던 시원기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양식에 있어 고구려적인 요소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탑리 금동관과 황남대총 남분 은관에 베풀어진 ①깃털형 장식, 탑리 금동관과 북천동 10·11호 금동관의 ②삼엽문 장식, 은관 중앙에 베풀어진 ③산형 입식과 관테 및 세움장식에 사용된 ④보요장식이 그것이다. 따라서 신라관의 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고구려문화라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 금공문화의 발달 및 관모장식의 면모는 어떠했을까? 고구려에서 금속제 장신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수입되어 유포되기 시작한 시기는 고구려가 동아시아와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한 4세기 전후라고 한다.²⁷⁾ 고구려의 귀족들이 금·은 등으로 화려하게 장

22) 이송란, 앞의 논문, 234-238쪽.

23) 이희준이 북천동 10·11호 출토 금동관의 양식을 초화형이라고 칭하는 반면(이희준의 앞의 책), 김병모는 자연수지형(김병모, 2012, 『금관의 비밀』 148쪽)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다.

24) 이한상, 위의 책, 108쪽.

25) 황남대총남분의 편년은 금공예품 기준으로 볼 때 5세기 중반설을 따른다. 그러나 은관은 고구려양식의 영향을 받은 초기형식으로 분류되기에 이 장에서는 양식적인 측면만 논하도록 하겠다.

26) 이송란, 앞의 논문, 228-230쪽. 권오영 외 5인, 「유물과 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의 冠」 『고고자료에서 찾은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 21-24쪽, 고구려연구재단.

27) 4세기에 들어설 즈음 고구려는 대동강 및 재령강 유역 한군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고, 서진이 멸망하고 분열기에 들어선 요동지역 진출도 적극 모색한다. 이로 말미암아 4세기 초 동아시아에서는 인적 물적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고구려는 이러한 변화와 교류에 적극

식하였음은 중국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²⁸⁾ 고구려의 황금문화 가운데 관식이나 이식의 경우 매우 고구려적인 도안과 기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장식구의 도안이나 제작기법이 바로 신라의 초기 금공품에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²⁹⁾

그러면 신라관도 고구려에서 기원했을까? 직접적으로 고구려의 금공문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도4. 청암리 금동관

있다고 한다.³⁰⁾ 고구려 관은 예가 많지 않고, 관테가 있는 대관 형식의 관은 거의 없다. 그 가운데 평양 청암리 토성 부근에 출토된 금동관은 백미로 꼽힌다(도4).³¹⁾ 얇은 금동판에 인동초(삼엽문)를 중심무늬로 베풀었는데, 위로 세워진 장식에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인동초가 피어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세움장식 가운데는 가장자리를 불꽃 무늬 대신 가위로 오려낸 다음 비틀어 꼬아 장식한 것도 있는데, 이는 고구려 장식구에 주로 구사되는 특징적인 기법이다.



도5. 관모장식(요녕성박물관)

고구려의 관모 장식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고유의 모자 절품을 장식하던 새 깃이나 이를 흉내 낸 금속제 장식물이다.³²⁾ 장신구 가운데 우선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집안 출토로 전하는 관식 2점이다(도5). 요녕성박물관 소장 의 이 두 개의 고구려 금동 관식은 중간 세움장식 가장자리를 가위나 끌로 오려 깃털 모양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역시 비틀어 끈 기법이 보인다. 윗부분에는 삼엽문을 투조했고 좌우 장식은 새날개 모양이며 전면에 둥근 보요가 가득 매달려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관식에는 세움장식이 3개 있는데 전체 형태는 긴 네모꼴에 가깝다(도6). 가장자리에 깃털 모양 장식을 베풀었는데 판을 가늘게 잘라 여러 번 꼬아 놓았고, 세움장식 중간에는 세로로 삼엽문 8개를 투조로 표현하고 있다.

고구려벽화에도 깃털형 장식을 갖춘 화려한 골소를 쓴 인물이 표현되고 있어 고구려관모 장식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도7).³³⁾ 태양릉 출토 금동관은

개입하였다. 고구려가 동아시아 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의 장에 적극 개입한 시기와 귀족층을 주된 소유자로 삼는 금속제 장신구의 제작, 유통 시점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셈이다. - 전호태, 2016 『고구려 생활문화사 연구』 128-129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8) 고구려의 귀족들이 금으로 장식한 금수(錦繡)의 차림으로 공회에 참가했다는 『삼국지』의 기사로부터 금으로 장식한 관복을 입었다는 연개소문에 대한 『신당서』의 기사까지 고구려인이 의복에 금을 장식을 더하는 관습이 있었음도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 전호태, 앞의 책(2016), 85-86쪽.

29) 이한상, 2004 「적석목곽분 출토 황금장식과 유리제품의 원류」 『신라문화』 23집,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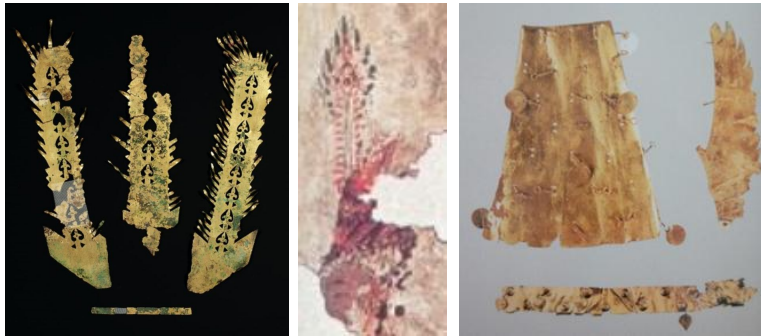
30) 이한상, 앞의 논문, 162쪽.

31) 이 금동관은 만든 기법이나 모양이 보통의 관과는 달라 왕관이 아니고, 불·보살상을 장식한 보관으로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식적인 면을 살펴보기 위해 이 자료를 사용했다.

32) 집안 우산하 2891호분, 우산하 3105호분 및 3560호분 출토 유물 한 점은 좌우로 벌어진 2개의 새 깃 장식 가운데에 새 깃 모양의 장식 하나가 더 세워진 형태의 것이다. 서울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관모 장식 3점은 위의 가운데 세우는 새 깃과 같은 형태의 것이다. - 전호태, 위의 책, 100쪽

33) 개마총 행렬도에서 가장 크게 묘사된 제일 앞 사람은 작은 보요들이 달린 높이 솟은 깃대골 장식 및 좌우로 넓게 펼쳐면서도 끝이 뾰족하게 처리된 날개 형태의 장식이 붙어 극히 화려해 보이는 절품인 골소를 썼다. 자색의 羅로 만들고 금으로 장식하며 관뿔이 있는 자는 새 깃 두 개를 위에 꽂아 이

산형 입식과 날개장식을 갖추고 곳곳에 보요장식을 매달아 고구려양식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도8).



도6. 관모장식(중양박물관 소장) 도7. 소골관 도8. 태왕릉 출토 금동관

이상의 고구려 금동관 및 관식은 정형화된 도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고구려적인 기법을 가진 것으로 초기 신라관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유사한 특징을 공유함은 분명하다. 요녕성 소장 금동관식은 신라 관모 장식과 비슷하고 산자형관식과 깃털형

장식은 황남대총 남분의 금동·은제 관식 및 은관과 유사하다. 중양박물관 소장 고구려관모장식과 개마총 벽화의 소골관은 의성탑리1곽 깃털형 금동관과 그 표현양식이 가장 많이 닮아 있다. 인동무늬가 간략화된 것으로 보이는 삼엽문 투조 장식 역시 복천동 10·11호묘 금동관에서 확인된다.

고구려에서는 4세기 후반부터 모자의 재질과 장식이 점차 화려해지고 다양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고구려의 관등 분화와 관련이 깊다고 한다.³⁴⁾ 즉 고구려의 금속제 장신구의 사용과 분화는 고구려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라관의 성립과 발전 역시 고구려의 예를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즉 고구려의 금속제 장신구 및 관모의 발달이 고구려의 대외관계 및 정치발달과 관련이 있다면 신라관 역시 신라정치의 발달, 즉 마립간기를 성립시키고 집권화된 신라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와의 교류 및 영향하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종래 중국의 선진문물은 주로 낙랑과 대방과 같은 漢군·현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낙랑과 대방의 몰락으로 고구려와 국경을 직접 마주하게 됨으로써, 중국으로 가는 서해안 루트가 없던 신라는 고구려를 통한 문화의 수입이 절실할 수밖에 없었으며 고구려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구려는 신라보다 더 빨리 중앙집권적인 정치체를 운영한 경험 및 발달된 문화와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이제 막 통합을 이룬 신라에게 있어 고구려는 하나의 롤모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인의 일반생활에도 고구려풍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왕실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에게 고급 고구려 문화가 넓게 확산되었다. 왕릉급 무덤에서 나온 고구려 계통의 冠 장식과 함께 광개토왕의 제사에 사용된 제기일 것으로 추정되는 호우, 장수왕대에 전래되었다고 여겨지는 은합우 등은 신라왕실과 고구려 중앙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4-5세기에 조성된 적석목곽분이다. 묘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강하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신라 중앙귀족의 무덤이 전혀 다른 양식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에 주로 경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독특한 묘제인 적석목곽분의 성립을 고구려의 적석총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렇다면

를 나타낸다는 골소가 이런 형태의 모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호태, 2015, 「고구려 복식문화 연구론」 『한국사연구』 170집, 124쪽, 한국사연구회.

34) 알사, 태사, 대형, 소형 등의 관등 명을 전하면서 이를 절풍 장식과 직접 연계시켜 언급한 『위서』의 기사는 고구려에서 관등에 따라 관모 장식의 형태, 내용이 달랐음을 구체적으로 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호태, 위의 책(2016), 86쪽.

정치적 관계가 무덤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 셈이다. 하지만 신라는 무덤에 돌을 쌓아 올리는 고구려식 묘제를 채용하면서도 무덤 안에 대형 목곽을 만들고 돌을 쌓아 올린 후 외곽에 흙과 모래로 봉토를 만들고 다시 떼를 입힘으로써, 당시 고구려의 대표적 무덤 양식이었던 적석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창안하였다.³⁵⁾ 신라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록 고구려 양식기법이 사용되었지만 고구려와 동일한 양식의 관을 만들지 않았다. 고구려관은 대관 형식의 관보다는 천으로 만든 모자에 금·은장식을 더했을 뿐이지만 신라인들은 관테를 두른 대관을 성립시켰고, 이후 그들만의 양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신라의 독자성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마립간 초기의 신라는 고구려에 능동적으로 접근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선진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여 신라의 발전을 도모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구려적인 신라관이 출현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립간기를 열었던 김씨왕실이 있었다.

35) 김용성, 2010 「적석목곽묘와 적석봉토분의 이해」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출판사, 32-33 쪽.

2. 마립간기의 성립 배경과 황금

마립간기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김씨족단에 의한 왕권의 세습이라 할 수 있다. 이사금 시기까지 신라는 박·석·김씨의 3성 교립에 의해 왕권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박씨와 석씨에 의해 왕권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김씨족단은 시조 알지 이후 제한-아도-수류-옥보를 거쳐 구도 때에 이르러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 그의 아들 미추가 조분 이사금의 사위로서 처음으로 왕권을 차지했다.³⁶⁾ 다른 두 족단에 비해 늦게 시작한 김씨 왕권이 마립간기를 열고 금관으로 대표되는 화려한 황금문화를 이룩한 배경은 무엇일까?

김씨왕권의 성립에 관해서는 주로 구도의 군사활동 및 왕실과의 꾸준한 통혼 관계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다.³⁷⁾ 통혼은 왕권에 진입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는데, 이는 신라사회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여서(女婿)계승이 왕위계승에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³⁸⁾ 미추가 조분이사금의 사위로서 왕권을 계승한 것처럼, 내물과 실성 역시 미추이사금의 사위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또한 김씨족단의 성장과 관련하여 황금이 있었다는 주장은 신라금관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³⁹⁾ 본고에서는 이러한 김씨 세력의 가장 주요한 성장 배경이 ‘황금’이라는 주장에 적극 동의하는데, 가장 유력한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알지 신화라고 본다. 김씨가 왕권을 세습하고 왕권을 강화해 나가던 마립간기에 정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알지신화는 마립간기 김씨족단의 정체성을⁴⁰⁾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金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김알지신화에는 ‘金城’, ‘황금궤짝’, ‘알지의 성씨인 金’에서 황금과 관련된 단서들이 들어있다. 金城이라는 명칭은 지방을 통합하고 그에 대비되는 왕경이 탄생하면서 명명된 것으로 후대의 김씨세력들은 자신들이 사는 왕경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황금의 도성’ 즉 ‘金城’으로 명명한 것이다. ‘황금궤짝에서 나온 알지’ 역시 황금과 김씨족단과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라는 마립간 시기에 금관을 비롯한 수많은 황금장신구들이 만들어지는 등 화려한 황금문화를 이룩했다. 통일신라시기 35금입택에 관한 이야기나 『일본서기』의 신라 황금에 대한 기록⁴¹⁾, 아랍인이 남긴 기록⁴²⁾ 등에 신라가 황금의 나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마립간기 이후에도 여전히 신라에 황금문화가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황금궤짝에서 나온 알지’는 신라의 김씨 왕들이 이룩한 황금문화를 표현한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이다.

또한 김씨의 조상인⁴³⁾ 알지가 황금궤짝에서 나왔기 때문에 金을 姓氏로 채택한 것은 김씨

36) 『삼국사기』 신라 본기2, 미추이사금 즉위조.

37)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가면 파사이사금(80~112년), 지마이사금(112~134년), 별휴이사금(135~196년)의 부인이 모두 金씨이고, 조분이사금(230~247년), 첨해이사금(247~261년)의 어머니가 김씨 仇道갈문왕(미추왕의 아버지)의 딸로 金씨였다. 결국 이런 혼인관계를 거쳐 구도의 아들 미추(262~298년)가 첨해이사금을 이어 이사금으로 등극하면서 김씨세력은 처음으로 왕권을 차지하게 된다.

38) 선석열, 2015, 『신라 왕위계승 원리 연구』 71-73쪽, 해안.

39) 후보돈, 2002, 「신라국가 형성기 김씨족단의 성장배경」 『한국고대사 연구』26호, 한국고대사학회.

40) 고대의 국가는 대개 자신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건국신화나 시조신화를 통해 정체성을 부여받았는데, 신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신라의 건국신화는 사로국이 신라로 성장하면서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나희라, 2016, 「신라의 건국신화」 『신라의 건국과 성장』 50쪽, 신라문화연구총서.

41) 『日本書紀』8 仲哀記 8年 秋8月 8日 : 4세기의 신라를 황금이 번쩍이는 나라라고 표현.

42) 정수일, 1992 『신라-서역교류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1~197쪽: “신라는 살기 좋고 이점이 많으며, 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정착해서 떠나지 않는다.” - 아랍권 사학자 알 라지(854~932년) “신라인들은 집을 비단과 금실로 수놓은 천으로 단장한다. 밥을 먹을 때 금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한다.” - 알 마크디시, 966년 『창세와 역사서』

족단과 황금과의 관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에서 최초로 姓氏를 칭한 인물은 ‘심맥부(深麥夫)왕 김진흥(金眞興)’, 즉 진흥왕이라고 한다.⁴⁴⁾ 6세기 중엽 진흥왕에 의해 ‘金’이 먼저 채택된 이후 7세기 중반 국내의 진골귀족도 ‘金’을 성씨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한 세대 정도 늦게 ‘朴’이 채택되고, 뒤이어 ‘朴’도 출현하였다. 이처럼 국왕과 진골 귀족이 金·朴을 칭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인물을 시조로 설정하고 그 시조 신화에서 칭성의 모티프를 도출하였으며, 그 시조의 모든 후손들에게 성씨를 소급했다. 이들 성씨는 상호 분립해 있던 혈족집단과 그 집단에 대한 소속의식을 나타내는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⁴⁵⁾ 따라서 김씨족단은 그들이 가진 혈족에 대한 소속감과 황금과 관련된 정체성을 ‘金’이라는 성씨를 채택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드러냈던 것이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철광이나 뛰어난 제철, 제련 기술을 보유한 집단이 철자원을 기반으로 삼아 정치적 패권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박씨가, 후에는 석씨족단이 이사금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도 바로 이 철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철을 다루는 고도의 기술 수준은 일정 단계에 이르자 점차 일반화되어 더 이상 특별한 선진적 기술로 취급받기 어려웠다. 그런 상태에서 나온 것이 바로 金·은이었으며 이를 먼저 확보하고 이용해 성장한 세력이 바로 김씨족단이었으며, 그들은 후일 마립간을 배출하면서 자신들의 배경이 되어준 황금과 관련된 시조신화를 만들고 다듬어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 황금은 삼한사회에서 장신구 내지는 귀중품으로써 크게 선호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구슬은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하지만, 金·은과 錦·繡는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다.⁴⁶⁾ 3세기 당시 선진지역이었던 부여나 고구려에서는 ‘모자에 金·은을 장식하거나 동맹과 같은 공식적인 모임에서 金·은으로 옷을 장식하고, 사람이 죽으면 金·은을 부장하는 등’ 이미 金·은의 존재와 그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⁴⁷⁾ 실제 진·변한 시기로 추정되는 고분에서 金·은으로 제작된 물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김씨족단들의 무덤인 적석목곽묘에서 金·은 제품이 출토됨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것이다.

신라에서 가장 최초의 황금제 실물은 경주 월성로 가-13호분에서 출토된 금제품들이다. 이 고분의 연대가 대체로 4세기 중엽으로 비정되고 있음으로 이때가 신라의 金은 제공기술 도입의 하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세기 후반 이후 4세기 중반 무렵 사이에 金·은의 제공기술이 도입되고 황금의 부가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⁴⁸⁾ 따라서 김씨왕권 이

43) 김씨 시조에 대해서는 김알지설, 김성한설, 김나물설, 김미추라는 설, 중국의 신화적 인물인 소호금 천씨 등 다양한 논의가 있다. 신라의 왕들은 시대에 따라 그들의 시조에 대해 조금씩 다른 기록을 남겼다. 이것은 김씨족단 내에 일어난 가계 분화에 따라 각기 다른 시조를 내세웠을 가능성도 있고, 중국과의 연결을 의식해서 일수도 있다. 그러나 알지가 김씨의 시조로 내세워지고 그에 걸맞는 수식을 하게 된 것은 김씨계가 확립된 마립간기라고 간주되기에 마립간기에 시조로 여겨졌던 김알지 신화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140-147 쪽, 지식산업사

44) 신라 왕실과 진골귀족의 성씨는 이름을 성과 명으로 구성한 중국 문화와 격식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어 대외용 격식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한다. - 이종서, 2017, 「신라 진골 성씨의 성립과 기능 변화」 『역사와 현실』 105호, 217쪽, 한국역사연구회.

45) 이종서, 앞의 논문, 217-221쪽 : ‘알지’와 ‘혁거세’, ‘탈해’가 『삼국사기』에 김씨와 박씨, 석씨의 시조로 기록된 것은 신라의 귀족이 ‘金’, ‘朴’, ‘朴’을 채택하기 이전에 이미 혁거세와 알지, 탈해를 시조로 숭앙하는 혈족집단이 성립해 있었음을 알려주며, 이들 각 집단의 소속원들은 성씨를 통하여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6) 『三國志』30, 烏丸鮮卑東夷展 韓條.

47) 『三國志』30, 烏丸鮮卑東夷展 夫餘條와 高句麗條

48) 후보돈의 앞의 논문, 143쪽.

전에도 황금의 존재에 대해서 삼한 사회가 몰랐을 리가 없다. 『삼국사기』에도 신라 일성왕(134-154)대에 민간에서 金銀珠玉의 사용을 금지시킨 일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⁴⁹⁾ 이것은 오히려 왕실이나 지배층들이 금·은·주옥을 많이 소비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4세기 이전에 금을 사용한 예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은 다른 용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4세기 이후 중국 자체에 금 수요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상황과 관련해서 신라의 금이 국제적인 교역체계에서 일정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⁵⁰⁾ 또한 삼한 사회가 오래도록 낙랑, 대방과 교류하고 교역하였기에 고구려를 비롯한 낙랑의 금공예품을 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3세기 이전의 진한 사회가 황금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량의 금·은 및 주옥을 중국 및 이웃나라들에 공납하거나 금을 매개한 교역까지 하고 있었으나⁵¹⁾ 細工할 기술을 가지지 못하여 직접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 사회가 황금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한 제공하는 기술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 외부로부터의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앞서 그 계기를 고구려와의 교류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구려와의 교류를 주도하고 가능하게 한 것은 김씨족단과 신라의 정치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9)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일성왕 11년조.

50) 권영필, 앞의 논문, 15쪽.

51) 황금은 '영원성, 건강, 권위, 빛'을 의미하는 속성 때문에 신석기시대부터 신성한 물질로 간주되었다. 서양에서는 금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등 경제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금화를 만들어 화폐로 사용한 예가 없다. 따라서 황금을 경제적인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우나 황금이 각종 귀중품의 재료로 다양하게 소비되었기에 황금의 수요가 상당했던 만큼 황금의 공급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내물·실성마립간기의 신라정치와 고구려의 영향

신라관이 출현하기 시작했던 마립간 초기, 즉 내물·실성마립간 시기의 신라정치·사회의 일면을 살펴보겠다. 흘해이사금이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미추이사금의 사위인 내물이 왕위를 이었다.⁵²⁾ 이사금시기에는 전왕이 무자(無子)일 경우에는 국인(國人)의 승인 혹은 추인의 과정을 통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내물은 이례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데 이들의 승인이나 추인을 받지 않았다.⁵³⁾

미추 뒤의 유례(284-298), 기림(299-310), 흘해(310-356) 등 내물 이전의 이사금들에게 아들이나 사위가 전혀 없지 않았을 텐데, 3대 전의 왕의 사위였던 내물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여서계승이 가능한 신라 왕실에서도 이례적인 경우다.⁵⁴⁾ 결국 내물이 등극하기 이전 신라왕실에서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및 혼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물은 같은 족단인 김씨 최초의 왕, 미추의 사위로서 김씨혈족의 강력한 후원을 힘입어 경쟁자를 제치고 왕위에 올라 마립간 체제를 출발시키고 김씨왕권 시대를 열었다.

국인의 지지가 아닌 김씨세력의 지지에 의해 왕위에 올랐기에 내물은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고 신성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재위 3년과 7년의 기사는 내물왕의 신성화 작업을 말해 주고 있다.⁵⁵⁾ 위의 기사들은 시조사당에서 여러 가지 상서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내물의 왕위계승의 정당성 확보 및 왕권의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서술이라 할 것이다.

대외관계를 보면, 내물왕 9년에 있었던 왜의 침입을 대패시켰으며, 11년과 13년에 걸쳐 백제의 우호적인 접촉 시도가 있었으나 신라의 피드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18년(373년) 백제 독산성 성주의 신라 귀부로 백제와의 관계는 다소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되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를 저울질하다가 결국 고구려의 손을 잡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동남쪽에 치우쳐있는 지리적 환경 탓에 북방선진문물을 접하기 어렵고, 선진문물의 집약지인 중국으로 가려면 고구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6년(381년) 내물왕은 위두를 전진에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치는데, 위두가 중국의 전진에 나가 조공하고 중국의 선진 문물들을 접하고 돌아오는 데는 고구려의 도움과 안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내물왕대의 조공은 그 이전의 진한연맹체의 대표로 사신을 보낸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晉書』 列傳, 辰韓條에는 무제태강원년(265년) 진한의 왕이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치고, 2년과 7년에도 조공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는 미추이사금 시기로 추정되는데, 『삼국사기』에는 이러한 대중국 외교 사실이 누락 되어 있다. 이는 미추이사금시기에는 사로

52) 『三國史記』 新羅本紀 권3 내물이사금 즉위조: ‘訖解葬, 無子, 奈勿繼之’

53) 내물왕의 즉위에 국인의 승인이 없었다는 것은 실성을 제외한 이후의 마립간들이 승인절차 없이 왕위에 오르는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양정석, 1996 「신라 마립간기 왕권 강화과정과 지방정책」 『한국사학보』1권, 242쪽, 고려사학회.

54) 이들 3명의 부인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남아 있지 않다. 흘해왕이 46년이라는 제법 오랜 기간 통치한 것에 비하면 왕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 의문스럽다. 소지왕이 아들이 없어도 왕비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연유로 『삼국사기』의 상고기 기년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년을 조정하여 사료를 해석하기도 한다(선석열, 2015 『신라 왕위계승원리 연구』 해안, 88쪽; 조정된 기년을 적용하여 내물마립간의 즉위를 흘해가 아닌 미추이사금을 이은 것으로 해석)

55) 『三國史記』 新羅本紀 권3 내물이사금 3년(358년): 봄 2월에 몸소 시조 사당에 제사지냈다. 자주색 구름이 사당 위에 등글게 서렸고 신비스러운 새(神雀)들이 시조 사당 뜰에 모여들었다. 7년(362년): 여름 4월에 시조 사당 뜰에 있는 나뭇가지가 다른 나뭇가지와 이어져 하나(連理木)가 되었다.

국이 진한 전체의 대표자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지배망이 확립되지 못한 것임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⁵⁶⁾ 이에 비해 내물마립간대의 기록은 신라가 진한 사회를 완전히 통합하고 절대적인 우위에 선 상태에서 대중국외교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내물왕대가 신라의 변혁기인 마립간시기를 열고 주도해 나갔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⁵⁷⁾

재위 37년 내물은 광개토왕이 사신을 보내오자 고구려가 강성하다는 이유로 실성을 볼모로 보냈다. 이는 내물마립간과 동서지간이자 석씨와 통혼관계가 있는 실성을 볼모로 보냄으로서 고구려를 이용해 정적 및 기존 세력 제거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해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왜의 공격과 말갈의 공격, 가뭄과 누리의 재앙⁵⁸⁾ 등으로 인해 내물마립간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399년 왜와 가야의 침입으로 인해 금성이 포위되자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400년 광개토왕의 대규모 원정군이 신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광개토왕의 남정으로 인해 비록 신라는 구원을 받았지만 고구려는 이를 기회로 군사력을 신라에 남겨 두고 신라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고구려의 간섭으로 인해 오히려 내물왕은 정치적으로 고립되고,⁵⁹⁾ 자신이 제거하려 했던 실성이 고구려의 지원하에 귀국하여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왕실에서 지지층이 두터운 눌지보다는 고구려에서 오랜 기간 볼모로 있어 친연성이 높은 실성을 옹립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이러한 선택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있었을 것이며⁶⁰⁾, 이들은 아마도 석씨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로 간주된다. 따라서 실성의 즉위는 내물이 주도하던 마립간 체제를 반대하던 세력들로 추정되는 석씨세력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성의 혈연관계에서 어느 정도 추정가능하다.

『삼국사기』기록에 의하면 실성은 알지의 후손으로 이찬 대서지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이리 부인으로 아간 석등보의 딸이고, 왕비는 미추왕의 딸이라고 한다.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실성의 아버지 대서지를 미추왕의 동생으로 언급하고 있어 내물의 아버지인 말구와 형제관계로 보고 있다. 즉 내물왕 후반부에 김씨족단 내의 말구계열과 대서지 계열이 왕위 계승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왕권을 둘러싼 경쟁구도는 김씨족단 간 보다는 오히려 김씨와 석씨와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내물은 김씨세력의 지지에 힘입어 왕권을 계승한 왕이었다. 김씨족단 입장에서는 내물의 맏아들 눌지가 있음에도 굳이 다시 실성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석씨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실성의 입장에서 김씨보다는 석씨세력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 석씨족단의 입장에서도 내물 재위 시 잃어버렸던 권력을 실성의 옹립을 통해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연히 실성 즉위 후의 정치운영에는 내물마립간기와는 달리 석씨세력의 이해가 적극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사금체제를 지지하던 대서지계 김씨세력

56) 이와 관련하여 영일군 신광면에서 출토된 ‘潘率善濊伯長銅印’의 존재는 의미심장하다. 이 銅印은 낙랑군과 대방군을 통해 남부의 토착 군장에게 준 관작을 입증하는 유물로써, 사로국에 인접한 영일의 정치체가 중국의 진과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려준다.

57)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3, 내물이사금 26년 조.

- 위두를 부씨의 진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부견이 위두에게 물었다. “경이 말하는 해동이 일이 옛날과 같지 않다니 무슨 뜻인가?” (위두가) 대답하였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혁되고 호칭이 바뀌었으니, 지금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58) 『삼국사기』 신라본기3 내물이사금 38년, 40년, 42년, 44년조.

59) 『삼국사기』 신라본기3 내물이사금 45년: ‘겨울 10월에 왕이 탔던 內廐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이 기사는 내물왕이 죽기 2년 전의 기사로 내물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보여준다.

60) 『삼국사기』 신라본기3 실성이사금 즉위조: ‘내물왕이 죽고 그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렸으므로 나라 사람(國人)들이 실성을 세워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들 또한 실성을 지지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마립간’ 왕호를 칭한 시점에 대한 상이한 기록에 대한 해명이 가능해진다. 즉, 내물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마립간의 칭호가 마립간 체제를 반대하는 석씨세력의 이해를 반영한 실성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놀지대에 복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⁶¹⁾

실성은 즉위하자마자 왜와 우호를 통하고 내물왕의 아들 미사흔을 볼모로 삼게 한다.⁶²⁾ 이것은 신라가 왜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무리한 측면이 있다. 왜의 공격이 399년에 이루어졌고, 고구려의 군사원조로 왜가 축출된 것이 400년인데, 불과 2년 뒤인 402년에 실성이 즉위하자마자 왜와 우호를 통하고 볼모까지 보낸 것은 분명 내물왕계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라 보여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조처는 일면 실성왕이 고구려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자적인 행보로 비춰질 수 있었다. 백제와 적대 관계에 있던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가 백제와 우호관계에 있는 왜와 손을 잡는 것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이종의 효과를 노린 왜에 대한 무리한 친선외교 역시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⁶³⁾

실성은 11년 내물의 아들 복호까지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고 내물왕계를 약화시키고자 한다.⁶⁴⁾ 이것은 결과적으로 고구려에 대한 예측을 심화시켰으며, 이에 김씨세력은 실성의 이러한 행보에 불안 및 불만이 심화되어 모종의 자구책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성으로 대표되는 석씨세력들이 고구려를 이용하여 김씨세력을 제압하고자 했다면, 김씨세력 역시 석씨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고구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씨세력의 접근으로 고구려 쪽에서도 이즈음에 석씨세력과 김씨세력을 저울질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와중에 실성은 재위 14년 군대를 크게 사열하고 왜인과 싸워 이기는 등 나름 신라의 국방력과 전투력을 향상 시킨 것으로 보인다.⁶⁵⁾ 그러나 이러한 실성의 무리한 행보는 곧 한계를 드러낸다. 미사흔을 볼모로 보내 무리하게 왜와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왕권강화를 위해 군대를 사열하는 등의 군사적 행보는 실성과 놀지를 저울질하고 있던 고구려의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던 것이다.⁶⁶⁾ 실성의 실각에는 고구려 군사의 개입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씨세력의 힘 역시 작용했다고 본다. 실성이 석씨세력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상황을 김씨족단이 계속해서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성이 놀지로 대표되는 내물왕계 김씨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내물왕의 아들들을 제거하려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실제로 실성은 내물왕계로 대표되는 김씨족단 세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딸을 놀지의 비로 보낸 것이나⁶⁷⁾ 김씨로 추정되는 서불한 미사품⁶⁸⁾에 의해 왕권이 견제되는 것⁶⁹⁾ 등은 이를 암시한다.

고구려를 배경으로 왕권을 차지한 실성은 언제든지 고구려에 의해 버림받을 수 있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⁷⁰⁾ 김씨족단 역시 그에게서 등을 돌림으로서 왕권은 다시 내물의 아들 놀지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놀지가 실성을 제거할 때 석씨 집단에 대한 공격이 함께 이루어진

61) 장창은, 2008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 관계』 96-97쪽, 신서원.

62)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실성이사금 원년.

63) 실성왕 4년과 6년에 왜의 침략이 있었으며, 7년에는 실성이 정예군사를 뽑아 먼저 왜의 진영을 공격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세우기도 했기 때문이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실성이사금 4, 6, 7년.

64)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실성이사금 11년.

65)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실성이사금 14년.

66) 『삼국유사』 권1 기이1, 실성왕.

67)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놀지마립간 즉위조 - “왕비는 실성왕의 딸이다.”

68) 신라 상고기 인명에 공통자가 있는 인물은 동일한 친족집단임이 유력하다면 미사품은 내물왕의 왕자이자 놀지의 동생인 미사흔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 장창은, 앞의 책, 97쪽.

69)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실성이사금 7년.

70) 『삼국유사』 권1 기이1, 실성왕 : 王忌憚前王太校樹 子訥祗有德望, 將害之. 請高麗兵而詐迎訥祗, 高麗人見訥祗有賢行乃倒戈而殺王, 乃立訥祗爲王而去.

것으로 보이며, 이는 김씨와 석씨집단의 갈등이 왕위 교체와 한 집단의 쇠퇴로 귀결된 것을 보여준다.⁷¹⁾ 이러한 정치 행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던 이사금 시기의 정치양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김씨족단 및 김씨왕권의 강화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내물마립간 후반부에 있었던 광개토왕의 남정을 계기로 시작된 고구려의 간섭은 눌지마립간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시기의 신라는 그야말로 고구려의 속민처럼 취급받았던 것 같다.⁷²⁾ 신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맺어졌던 고구려와의 화친관계는 인질 외교 이후 수직적 관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고구려는 한동안 신라를 자기나라의 속민처럼 인식했던 것이다. 실제 실성은 즉위 후 고구려의 후원에 대한 보답으로 직접 고구려에 가서 조공한 것으로 추정된다.⁷³⁾ 내물이 비록 고구려의 도움을 입었다 할지라도 직접 조공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실성은 더욱 몸을 낮춰 고구려왕에게 입조하여 조공하는 등 실성 재위 기간은 고구려의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고구려와의 지나친 밀착관계는 마립간 초기 정치의 한계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내물마립간대에 진행된 김씨왕권의 강화 및 신라자체의 내적인 통합 및 발전이 고구려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반면 대외적으로는 고구려라는 강대국의 종속국가로 전략한 듯한 모양새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실성왕 시기에 벌어진 기존의 이사금체제를 지지하는 석씨세력 및 대서지계 김씨세력과 새로운 마립간체제를 옹호하는 내물왕계 김씨세력간의 대립은 고구려의 간섭을 가속화시켜 신라의 왕까지 교체하게 된다. 이러한 고구려 우위의 정치적 상황은 신라관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고구려 양식의 다양한 형태의 신라관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71) 이종서, 앞의 논문(2017), 223-224쪽.

72) “百殘과 新羅는 옛적부터 (高句麗의) 屬民으로서 朝貢을 해왔다. …… ‘倭人이 그 國境에 가득차 城池를 부수고 奴客으로 하여금 倭의 民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歸依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 노태돈 譯, 「광개토왕릉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73) “옛적에는 신라 寐錦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보고를 하며 聽命을 한 일이 없었는데, 國岡上廣開土境 好太王代에 이르러 (이번의 원정으로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하니) 신라 매금이 … 하여 (스스로 와서) 朝貢하였다.” - 노태돈 譯 「광개토왕릉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위의 기사에 나오는 매금에 관해서 앞의 신라매금은 내물왕으로, 뒤의 매금은 실성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 장창은의 위의 책, 91-94쪽.

II. 新羅冠의 양식 변화와 자립화시기 신라정치

눌지는 실성과의 경쟁에서 고구려의 지지를 얻어 극적으로 즉위하였다. 눌지는 상당기간 고구려에 볼모로 지내 국내 기반이 부족했던 실성과는 달리 신라 국내에 지지기반이 있었으며 고구려세력에 덜 얽매일 수 있었다. 반면 눌지의 아우인 복호가 고구려에 볼모로 와있어 눌지에 대한 견제장치를 이미 가지고 있던 고구려는 신라내의 김씨족단이 가진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고 그들이 지지하는 눌지를 통해 김씨세력과 손을 잡음으로서 신라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백제를 견제하고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자 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눌지마립간은 고구려로부터 버림받은 실성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 곧 자립화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분열된 각 정치세력들을 김씨왕권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노력들을 지속해 나갔다. 이 장에서는 자립화시기로⁷⁴⁾ 불리는 눌지마립간 시기 신라관의 변화와 그와 관계된 정치적인 면모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3단 직각수지형입식 금동관의 성립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신라관의 특징은 바로 3개의 3단 직각수지형 입식을 갖춘 금동관의 성립이다.⁷⁵⁾ 복천동 1호분 출토 금동관(도9)은 복천동 10·11호분 신라관(도2)과 비교하면 양식상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고구려양식인 삼엽문 장식이 사라지고 입식자체도 초화형 또는 자연수지형이 아닌 좀 더 직각에 가까운 수지형입식을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금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금동관이 많이 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가지의 내각이나 들림각이 많이 벌어져 있으나 차츰 직각에 가까워지며 입식의



도9. 복천동1호묘 금동관

폭도 점점 넓어지게 된다.⁷⁶⁾

왕경의 경우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동관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신라관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⁷⁷⁾ 제작 연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큼의 차이가 드러난다. 고구려 양식의 은관 및 금동관 1점과 3단 직각수지형 금동관 및 시원적인 녹각형 금동관 등 총 7개의 금동관이 출토되었다.⁷⁸⁾

특히 앞 장에 살펴 본 깃털형 은관은 제작기법에 있어 고구려 계통임이 확실하여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관임을 고찰해 보았다. 주목되는 것은 파편의 형태로 남아 있어 완벽하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같은 양식을 공유한 4 점의 금동관이다.(도10) 이 금동관들은 내각 및 들림각에

74) 복호구출이 있었던 418년부터 신라 주둔 고구려군사 축출 시기로 추정되는 454년까지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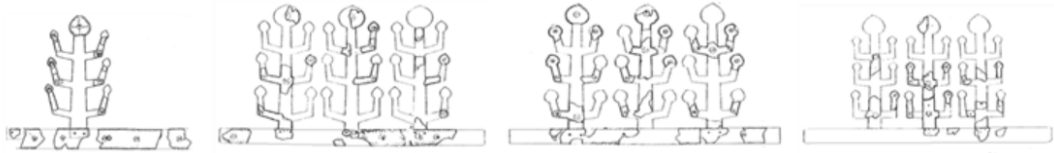
75) 완전한 직각이 아니기에 직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초기 관에 나타나는 자연수지형과 비교해서 직각인 형태로 나타나기에 본 논문은 '직각수지형'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76) 이한상, 앞의 책, 78쪽.

77) 1994, 『황남대총 남분발굴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 황남대총남분에서 출토된 신라관 중 은관 1점과 금동관 1점은 고구려의 깃털형 입식을 갖추고 있다. 은관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출토된 반면 깃털형 금동관은 파편의 형태로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다. 그리고 4개의 수지형 금동관 역시 파편의 형태로 출토되었는데, 비교적 같은 양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녹각형의 시원으로 보이는 1개의 금동관은 파편으로만 남아 있어 그 양식의 정확한 형태를 유추하기 힘들어 연구자들이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78) 이렇게 양식을 조금씩 달리하는 관들이 한꺼번에 부장되었다는 것은 피장자가 생존 시에 사용했음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부장용이라면 같은 양식의 1-2개의 관을 묻었을 것이다.

있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3개의 3단 직각수지형입식을 공유하고 있다. 피장자가 착용한 금동관은 이 중 가장 발전한 형태로 좀 더 직각에 가깝고 곡옥과 수하식까지 부착되었다. 즉 처음에는 들림각이나 내각이 크고, 폭도 다소 좁은 고식에서 점차 각이 좀 더 직각에 가까워지



도10. 황남대총 남분 출토 4점의 금동관 도면

고 폭도 넓어지는 형태로 발전했으며, 후기에는 직각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곡옥 및 1쌍의 수하식(관드리개)까지 부착된 금동관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장자는 초기에 고구려양식의 은관 및 금동관을 착용하다가 점차 관에서 고구려양식을 배제시켜나갔으며 마지막에는 고구려양식이 아닌 신라식 금동관을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직각 수지형이라는 도상은 신라관의 가장 기본적인 도상으로 신라관이 소멸될 때까지 그 뼈대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듯 고구려 계통과 구별되는 3단 직각수지형 입식대관의 성립은 신라적인 관의 성립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신라적인 관이라 함은 고구려양식이 사라지고 전형적인 신라식 도안이 정형화된 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하식이 달린 관과 목걸이, 귀걸이, 허리띠의 세트화된 착용유물이 완성되는 것은 황남대총남분 단계부터라고 한다. 이러한 세트화된 착용유물은 이후 신라 왕릉급 무덤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이 시기부터 신라사회에서 금공예품을 통한 질서확립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⁷⁹⁾

‘곧은 나무’를 표현한 것이 분명한 3단 직각수지형 입식은 어디서 도입한 것일까? 기존에는 이러한 나뭇가지형 입식을 외래기원설에서 찾는 견해도⁸⁰⁾ 많았지만 연대의 차이가 크고 비약이 심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⁸¹⁾ 오히려 신라 내부의 힘이 결집되고, 고구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힘이 발현되던 시기의 신라사회를 이해해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립간시기는 김씨왕권이 강화되면서 역대 왕가 및 족단의 계보가 정리되고 신화가 만들어지던 때였다. 이를 감안해보면 수지형 입식은 김알지 신화의 성립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알지 신화의 배태 장소인 鷄林은 신성한 나무와 관계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수목신앙이 널리 퍼져있고, 특정한 나무들은 우주목으로 신성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군신화의 신단수도 하늘과 땅을 잇는 우주기둥으로 神市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⁸²⁾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이러한 거목에 대한 믿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⁸³⁾ 따라서 수지형 입식은 넓은 의미로는 신성한 나무, 즉 하늘과 땅을 잇는 우주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좁게는 김씨왕권의 신성함을 뒷받침하는 김알지 신화 속의 나무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79) 이송란, 2001, 「고신라 금속공예품 연구-황남대총 장신구와 마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5쪽, 표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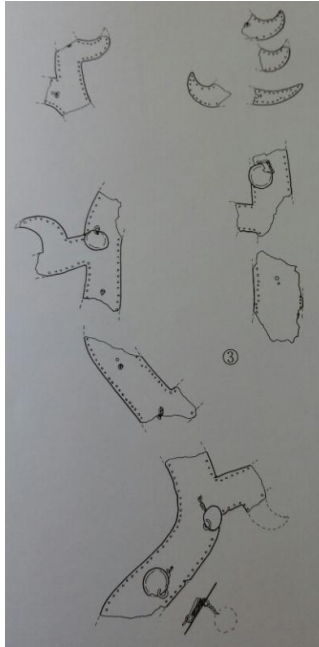
80) 김원룡, 앞의 논문, 「신라 금관의 계통」

81) 대표적인 예로 사르마트 금관과 툴리아테페 금관을 드는데, 두 금관 모두 1세기의 것으로 신라금관과는 시기적인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나 동서문화교류라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82) 전호태, 2007, 『자료로 본 한국고대의 역사1』 UUP.

83) 전호태, 1989,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풀빛.

마지막으로 황남대총남분에서는 약간 생소한 양식으로 추정되는 금동관 파편들이 출토되었다(도11). 이 파편들만으로는 정확한 양식을 추정하기 힘들어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규명은 어렵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도11. 황남대총남분 금동관

본 논문에서 약간의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황남대총남분 보고서에는 이 파편들의 형태를 녹각형으로 추정하면서, 입식 측지(側枝)에 ‘사실적인 녹각형’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⁸⁴⁾ 얼핏 보면 약간 굽어 있어 녹각형 양식의 시원적인 형태로 보인다. 신라관의 정형인 3개의 3단 직각수지형 입식에 2개의 녹각형 입식이 추가된 형태가 황남대총북분 단계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비슷한 형식이 앞서 남분단계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적인 녹각형’의 표현이라는 것에는 선뜻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사실적인 녹각형’이라 함은 이 도상 자체를 사슴뿔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입관을 걷어낸 상태에서 이 도상들을 살펴보면 사슴뿔로 보기에는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파편들의 완벽한 조합은 사실상 힘들지만 두 개의 입식이 굽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굽은 각도가 다르고, 결가지들의 표현 방식도 후대의 녹각형의 정형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몸통에서 한 가지씩만 뻗은 형태가 아니라 두 개로 갈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입식의 최상부에는 밑으로 살짝 처졌다가 다시 버선코 모양으로 끝이 들린 형태의 3단 맞가지 형식의 조합도 나타난다. 이 도상은 마치 나무와 뿔을 합쳐 놓은 듯한 이미지를 풍긴다. 만약 양쪽 도상 모두가 사슴의 뿔만을 의미한다면 다른 형태의 뿔을 양쪽에 장식한 썸이 되는데 이것은 곧 뿔이 생겨나는 속성을 무시한 것이 된다. 양쪽에 다른 형태의 뿔이 솟아나는 사슴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두 개의 측면 입식이 동일하지 않고 단편적인 파편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서로 조합을 하였는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도상을 가진 관은 황남대총남분 출토 금동관 1 점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이한 도상은 일시적으로 시도되었던 과도기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남분에서 출토된 과도기적인 도상이 북분단계에서 완성된 신라관의 진면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 본다. 즉 황남대총남분의 과도기적인 도상은 기존에 사슴뿔로 간주되던 소위 ‘녹각형’ 양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 문제는 신라관의 성립과 쇠퇴라는 전체 맥락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관을 만들어내고 착용했던 황남대총남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황남대총 남분은 신라 무덤 중에서 가장 큰 초대형급 왕릉으로 피장자는 금 허리띠와 큰 칼을 찬 60대의 남자로 추정되는데 무덤의 크기, 부장품의 질과 양으로 보아 마립간으로 추정된다.⁸⁵⁾ 더욱이 남분 주인공이 착용한 ‘帶冠’에는 금동관임에도 유일하게 곡옥이 달려 있어 피장자의 신분을 가능하게 한다.⁸⁶⁾ 황남대총 남분 금동관의 주인공에 관해서는 크게 내물왕릉

84) 1994, 『황남대총 남분발굴조사보고서』 본문 70쪽,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소.

85) 2010,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황남대총』 25쪽, 국립중앙박물관.

86) 곡옥은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동관을 제외하고는 금관에만 달려 있어 마립간과 그 가족의 배타적인 지위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장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지방의 경우에 곡옥이 달린 금동관이 단 1점도 출토되지 않아 신라관 속에 달린 곡옥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설,⁸⁷⁾ 놀지왕릉설로⁸⁸⁾ 나뉘나 실성왕릉설도 제기된다.⁸⁹⁾ 필자는 신라의 정치와 신라관의 변화 과정을 동일한 맥락에 놓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볼 때, 놀지왕릉설을 지지한다.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북분과 더불어 엄청난 양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는데, 각종 금공예품과 더불어 고구려와 관련된 유물들,⁹⁰⁾ 중국과 서역계통의 유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왕권의 위상을 대형 고분의 축조 및 각종 화려한 금공예품으로 드러내었던 마립간 시기에 조성된 황남대총은 신라고총 중 가장 거대한 고분으로 마립간기에 이루어진 왕권의 강화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놀지마립간기는 내물·실성 시기에 비해 훨씬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내물은 석씨와 고구려가 지원한 실성에 의해 밀려났고, 실성은 놀지 및 고구려에 의해 피살되었기에 큰 공력이 드는 대형고분의 축조 및 수많은 부장품의 부장이 어려웠을 수 있다. 산 자의 권력과 명분을 반영하는 것이 고분의 축조 이유 중 하나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죽은 자의 위상을 드러내는 것인 만큼 내물이나 실성왕릉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특히 고구려를 통한 문화의 수입은 마립간 초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고, 이러한 현상은 고구려와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시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물론 놀지가 고구려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 자립화 노력을 기울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4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졌기에 고구려로부터의 문화수입은 적어도 놀지마립간 말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놀지왕의 무덤에서 고구려 관련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놀지가 고구려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왕위에 오른 만큼 놀지마립간 초기에 고구려의 영향력은 막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도 한동안 고구려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놀지의 자립화 정책과 고구려의 영향력의 정도를 비례하여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오히려 놀지가 고구려로부터 멀어지려고 할수록 고구려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하사품으로 그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원고구려비」에 나오는 맹약의식 및 의복의 사여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따라서 황남대총남분의 고구려 계통 및 고구려의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유물들은 오히려 놀지왕릉설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황남대총남분 신라관의 출토양상을 볼 때 왕은 적어도 2개 이상의 관을 착용했을 것이다. 놀지왕 즉위 초기에는 고구려 계통의 은관 및 금동관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후 좀 더 신라적인 관의 도상이 모색되어 놀지 재위 대부분의 기간은 4개의 3단 직각수지형 금동관을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착용 가능성은 낮지만 놀지 후반에는 드디어 시원적인 형태의 녹색형입식이 시도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⁹¹⁾

이렇게 성립된 3단 직각수지형 신라양식의 관은 놀지왕 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지방에 하사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지방에서 금동관이 본격적으로 부장되기 시작한 시점도 대략 이 시기로 편년되기 때문이다. 《표1》은⁹²⁾ 4세기 말부터 5세기 중반까지의 신라관의 출토 현황을

87) 이희준, 2010 「황남대총남분 내물왕릉설의 제기 배경과 개요 그리고 의미」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88) 김용성, 2010 「신라 마립간시기의 왕릉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이한상, 위의 책, 102쪽.

89) 함순섭, 2010, 「황남대총을 둘러싼 논쟁, 또 하나의 가능성」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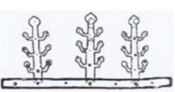


90) 금동식리, 금제이식, 청동 그릇 및 청동 도구, 고구려에서 온 장신구, 고구려적 요소가 들어 있는 화살통 및 화살촉, 말갈춤 등. -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91) 황남대총남분 피장자가 착용한 관은 가장 직각에 가까운 3단 직각수지형입식에 곡옥 및 1쌍의 수하식을 부착한 冠이었다. 따라서 피장자 생존시 마지막까지 착용한 관은 3개의 입식을 갖춘 직각수지형 관이지 아직 양식의 완성을 보지 못한 과도기적인 관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92) 이한상, 2006,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위원회, 2016, 『마립간 시기 I - 중앙』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경상북도. 김병모, 2012,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보여준다. 마립간 초반부에는 의성, 부산, 경산 지역에서 금동관이 출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산지역은 많은 양의 금동관이 출토되어 금동관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경산지역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신라 금동관의 발달과 동일하게 시원형식·표준형식·퇴화형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고 형식도 꽤 다양하다(표1,3).⁹³⁾ 또한 경산지

《표3》 신라관의 출토현황① (4C 4/4 ~ 5C 3/4)

연대	지방	형식	경주	형식
4C 4/4 5C 1/4	의성 탑리 1곽			
5C 1/4	부산 북천동 10·11호			
5C 2/4	경산 임당7A호		항남대총남분 은관 항남대총남분 금동관①	
	부산 북천동1호		항남대총남분 금동관③	
	경산 임당7C(그림) 대구 달서37호1실②		항남대총남분 금동관④	
5C 3/4 전반			항남대총남분 금동관⑤	
	※ 울산 조일리 금동관 (4개)		항남대총남분 금동관⑥	

역 정치체의 금동관은 5세기 초엽에서 6세기 중엽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당시 경산지역 정치 집단이 신라 국가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하겠다.

금동관으로 대표되는 위세품의 사여는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의관 복식 사여를 모델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구려로부터 자립화를 도모하던 5세기 중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고구려와의 결별을 앞두고 지방의 협조 및 통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금동관으로 대표되는 각종 금공예품 등을 위세품으로 하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력 재지세력은 귀이라는 지배자의 호칭과 함께 그들의 지배권을 상징하는 금동관을 중앙정부로부터 사여 받고 이를 매개로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재지세력들은 신라에 복속됨으로써 완전한 독자성은 상실했지만 다른 한편 중앙정부라는 힘을 배경으로 여전히 지방사회에서 군림하였던 것이다.⁹⁴⁾ 이러한 금동관의 지방사여는 마립간기 지방통치의 행태를 보여주

93) 김재열, 2010, 「5~6세기 신라 경산지역 정치체의 관」 『신라사학보』 55쪽.

94) 그들은 중앙정부로부터 공납물수취권이나 역부동원권 등을 부여받아 이를 적절히 행사하였을 것이

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으며 당시 신라지역에로의 편입이 확실시되는 주요 지역에서 골고루 출토되고 있다.⁹⁵⁾ 눌지마립간 시기 신라는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와 긴박한 줄타기를 하면서 자립화를 이루고, 안으로는 분열된 지도세력들을 김씨왕권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지역 수장층들의 협조를 이끌어 냈과 동시에 적절한 견제 및 분화를 이루어 가야 했다. 이것은 곧 신라관에 있어 고구려적인 요소를 탈피하고 독자적인 신라관의 도상을 모색하게 했다. 따라서 눌지마립간기 자립화정책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이 시기에 성립된 신라관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다. 비록 외교권이나 대외교역권 등은 박탈당했지만 촌락사회에서 공납을 매개로 하는 지배권은 그들을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존립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주보돈, 1998 『신라 지방통치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95) 이한상, 앞의 책, 97쪽, 112쪽. 김병모, 앞의 책, 195-205쪽의 관 목록 참고.

2. 눌지마립간의 자립화 정책과 왕권강화

눌지의 즉위에는 고구려의 지지와 함께 김씨족단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눌지의 정치과제는 자신을 지지했던 두 세력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어가고 이용해야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즉위과정에 있었던 정치적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고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세력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재설정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었다.

눌지 재위시기(417-458년)는 고구려 장수왕(413-491년) 재위 전반부에 해당한다. 특히 눌지왕 재위 전반부는 젊은 장수왕이 광개토왕이 이룩한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지켜나가고 확대해 나가던 시기였다.⁹⁶⁾ 광개토왕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고구려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납을 매개로 주변국들을 형식적인 속국으로 삼았다면, 장수왕은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속국으로 삼고자 했다. 북방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킨 장수왕이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평양천도(재위15년, 427년)를 추진한 것은 백제와 신라에 큰 위협으로 작용했다. 고구려에 대한 신라의 부담은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납’이라는 형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중되어 갔을 가능성이 크다. 『위서』에 4세기대 고구려에 황금과 마노 등의 공물을 바친 ‘涉羅’가 신라로 파악하는 견해가 많은 만큼, 고구려가 신라에게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했을 것임은 자명하다.⁹⁷⁾ 고구려에 대한 이와 같은 정치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눌지왕은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

눌지마립간의 이러한 선택은 그가 즉위한 바로 다음해 고구려와 왜에 인질로 가있던 복호와 미사흔을 귀환시키는 것에서 드러난다.⁹⁸⁾ 눌지는 두 동생을 귀환시킴으로서 고구려와 왜의 입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아울러 김씨세력을 재결집시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위 8년에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내 예방했다는 기록은 아직까지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별다른 관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다가 재위 17년(433년)과 18년에 나제동맹이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된다.⁹⁹⁾ 나제동맹은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나라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449년(눌지33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신라와 고구려의 우호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자연스럽다. 그동안 왜의 공격이 3번에 걸쳐 있었고, 왜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눌지가 포위되는 상황까지 가는 등 고구려와 완전히 결별하기에는 외부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다.¹⁰⁰⁾ 눌지왕은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등 신라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했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와 백제의 접촉에 대해 고구려의 장수왕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라왕을 비롯한 신하들을 불러 신라를 단속하고 두 나라의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한 관복사여 의식을 개최한 것이다.¹⁰¹⁾ 이 회맹에 관한내용은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중원고구려비」에 새겨져 있다.

96) 노태돈, 1988 「5세기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 시민강좌3』 일조각.

97) 장창은, 앞의 책(2008), 108쪽

98) 『삼국사기』 신라본기 3. 눌지마립간 2년. 『삼국사기』 열전 5. 박제상조.

99) 『삼국사기』 신라본기 3. 눌지마립간 17년, 18년.

100) 『삼국사기』 신라본기 3. 눌지마립간 15년, 24년, 28년.

101) 김현숙의 앞의 논문, 251쪽

5월에 高麗大王의 相王公과 …… 신라 寐錦은 世世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하여 서로 守天하기위해 동으로 (왔다). 太子 共 前部 大使者 多 丐桓奴 主簿 道德 등이 …… 로 가서 跪營에 이르렀다. 太子 共 … 尙 … 上 共 看 명령하여 太翟鄒를 내리고 … 寐錦의 衣服을 내리고 建立處 用者 賜之 隨者 … . 奴 客人 … 諸位에게 教를 내리고 여러 사람에게 의복을 주는 教를 내렸다. 東夷 寐錦이 늦게 돌아와 寐錦 土內의 諸衆人에게 節教賜를 내렸다. (태자 共이) 고구려 국토 내의 大位 諸位 상하에게 의복과 受教를 靑營에서 내렸다. 12월 23일 갑인에 東夷寐錦의 상하가 于伐城에 와서 教를 내렸다. 전부 대사자 다루 환노와 주부 道德이 국경 근처에서 300명을 모았다. 신라토내당주 下部 拔位使者 補奴 …… 와 盖盧가 공히 신라 영토 내의 주민을 모아서 … 로 움직였다.¹⁰²⁾

위의 기록에 따르면, 449년에¹⁰³⁾ 신라매금과 그 신하들에게 고구려 관복을 수여하는 의식을 주도한 사람은 장수왕의 아들이자 당시 태자였던 공(共)이다. 이 의식은 사실 신라의 요구가 아닌 고구려의 일방적인 요구에 신라가 마지못해 응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의식을 강요해야만 하는 고구려의 필요 때문이었을 것이다.¹⁰⁴⁾ 남진정책을 추진하는 고구려가 백제와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신라를 아직까지는 붙잡아 두어야 할 대외적인 사정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고구려가 중국과의 사이에서 경험한 인수의책 의식을 신라와의 사이에 적용하여 신라를 단속하고 표면적으로라도 신라에 대한 영향력 및 친교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광개토왕의 남정이나 복식사여 의식 등 중요한 사건이 『삼국사기』 등의 역사서에서 누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복식사여 의식이 놀지마립간 시기인 449년에 한 번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신라가 고구려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 조공을 기본으로 한 일종의 사대·종속관계로 전환되었을 때부터 복식사여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고구려로부터 경험한 복식사여 의식은 신라의 지방통치에 적용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때 금동관과 같은 위세품도 같이 사여된 것으로 보인다.

놀지의 자립모색과 나제동맹의 체결로 인한 신라와 고구려와의 불편한 긴장 관계는 449년의 회맹과 복식사여 의식을 계기로 잠시 주춤해졌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 하슬라의 신라 성주 삼직이 실직땅에서 사냥한 고구려 장수를 살해한 사건은 두 나라 관계를 다시 경색시켰다.¹⁰⁵⁾ 이 사건 역시 놀지의 자립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놀지마립간의 자립화 노력이 지방의 성주에게도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을 통해 당시까지도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에 대한 생각이 다소 불분명했으며, 이는 곧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⁶⁾

신라의 자립화 노력은 고구려 변장 살해 사건으로 잠시 주춤해졌다. 하지만 결국 신라로서

102) 서영대 譯, 「중원고구려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03)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5세기 초반설, 5세기 중반설, 6세기 초반설로 나뉜다. 필자는 5세기 중반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서술했다. 비의 내용으로 보아 고구려와의 관계가 5세기 초반 보다는 종속관계가 느슨해져 있음(노객 → 형제)을 볼 때, 종속관계가 심했던 5세기 초반은 아니며, 신라내의 고구려군사 주둔과 관련된 표현인 ‘신라토내당주’의 존재가 보이는 점에서 아직 놀지왕이 고구려군을 축출하기 이전(454년 이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4)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그동안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개토왕대에는 고구려왕에 대해 노객이라 자칭하며 조공해야 하는 속민이었지만, 행사주최자의 격이 서로 대등하지는 않고 여전히 신라가 한 단계 아래로 취급받았다 할지라도, 장수왕대에는 형제관계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구려에서도 두 나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정도로 그동안 신라의 국력이 급성장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현숙의 앞의 논문, 255쪽.

105) 『三國史記』新羅本紀 3, 놀지마립간 34년. 『三國史記』권18 高句麗本紀 長壽王 28년.

106) 이창현, 2006, 「江陵地域의 新羅化 과정-고분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25권, 한국문화사학회.

도 국운을 걸고서 고구려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돌발적 사건이 발생하였다.¹⁰⁷⁾ 신라가 국내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정병 1백 명을 몰살시키자¹⁰⁸⁾ 장수왕이 곧바로 쳐들어왔던 것이다.¹⁰⁹⁾ 이때 이후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를 번갈아 공격했고, 신라도 본격적으로 영토 회복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듯 눌지왕이 신라 내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병사들을 일시에 몰살시킨 이후 고구려와 신라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접어들었다. 이는 앞으로 고구려의 계속된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눌지 38년인 454년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한 이래로 소지 19년(497년)까지 고구려의 공격이 10여 차례 이상 지속되었다. 이렇듯 눌지마립간 즉위 다음해부터 추진해 온 자립화 노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여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눌지왕릉으로 추정되는 황남대총 남분에서 고구려 양식의 은관 및 고구려 계통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은 눌지마립간기에 이루어진 국내 정치를 왕권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눌지의 왕권강화와 관련된 세력으로 김씨족단, 지방세력, 박씨세력의 재등용으로 보고 눌지마립간기의 국내정치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재위기간 내내 고구려로부터의 자립화 노력을 지속했던 눌지의 입장에서 김씨족단의 지지는 절대적인 힘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눌지는 내물왕계를 넘어선 김씨족단 전체의 강력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되 자신의 왕권 또한 강화해 나가야만 했다.

김씨족단은 내물, 실성, 눌지 등 3명의 왕을 배출함으로써 명실 공히 신라의 최상위 족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존의 6부 체제에서 김씨와 관련된 탁부와 사탁부의 위상이 다른 4부를 압도하게 되었고,¹¹⁰⁾ 특히 실성을 중심으로 한 석씨세력과 경쟁에서 승리한 눌지대에는 기존의 박·석·김 3성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게 되었다. 김씨족단이 석씨 및 박씨족단과의 경쟁구도에서 승리자가 됨에 따라 그들의 집권을 정당화시켜 주고 뒷받침해줄 이념적인 체계가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눌지 19년의 역대왕릉 수축 기사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 기사는 김씨왕권을 신성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신라 초기 왕들은 그 출자와 사회적 변화상을 놓고 볼 때, 정치적 균장을 본질로 하나 지배 권력의 합리화에 천신신앙과 관련된 종교적인 권위의 표방이 필요했다.¹¹¹⁾ 비록 김씨 왕권이 확립된 이후의 왕들이 종교적 권위보다는 군자상이나¹¹²⁾ 강인한 대장부상을¹¹³⁾ 표방했다고는 하지만, 내물과 눌지마립간기의 신이한 기사들은¹¹⁴⁾ 마립간 시기에

107) 『일본서기』유락천황 8년 2월조.

108) 『일본서기』의 ‘수탑을 죽여라!’라는 작전명으로 단행된 신라의 고구려 정병 몰살 사건은 464년에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기사는 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눌지왕 38년인 454년에 고구려가 신라의 북변을 침공해 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하자 눌지왕이 구원병을 보내 주었다고 나온다. 두 나라의 공수동맹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인 464년까지 신라 안에 고구려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구려 정병 몰살 사건은 고구려가 신라의 북변을 침공한 454년 이전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 김현숙의 앞의 논문, 256쪽.

109) 『삼국사기』신라본기 3, 눌지마립간 38년.

110) 전덕재, 1996 『신라 6부체제 연구』 일조각. 박성현, 2018 「신라 6부의 시기적 변천과 기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89』 한국고대사학회.

111) 김병곤, 2003,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 224쪽, 학연문화사.

112) 『삼국사기』 권3, 눌지마립간 즉위조 - ‘고구려 사람이 눌지의 인품이 시원스럽고 우아하여 군자의 품모가 있음을 보고는 ….’

113) 『삼국사기』 권3, 실성마립간 즉위조 - ‘실성은 키가 일곱 자 다섯 치이고 지혜가 밝고 사리에 통달하여 앞 일을 멀리 내다보는 식견이 있었다.’

114) 『삼국사기』 권3, 눌지마립간 25년 - ‘갑자기 안개가 어둑어둑하게 끼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알아볼 수 없었다. 적들이 말하기를 “신이 돌보아 주는 구나.” 하고는 군사를 거두어 물러갔다.’

도 역시 종교적인 권위가 필요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놀지마립간이 역대원릉을 수습한 이유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역대원릉을 단장한다는 것은 왕실의 왕통계보 정리와 관계가 있고, 왕통계보의 정리는 놀지마립간대의 왕권 안정과 계승의 정당화라는 의도에서 나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¹⁵⁾ 이런 과정에서 김씨족단의 계보도 함께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조의 존재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하는 신화의 성립이 모색되었을 것이다.¹¹⁶⁾ 한편으로 놀지 초기에 석씨왕실 세력의 견제에 의해 김씨족단 내부의 분열이 극대화 되어 있었던 만큼 김씨세력의 통합을 위한 모종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고, 놀지마립간은 역대왕릉 수습이라는 카드를 꺼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왕통의 계보가 정리됨으로써, 이 후의 왕통이 김씨왕실에 의해 부자상속으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김씨왕실의 통합을 이루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내물마립간 직계인 그의 형제들, 볼모로 가있는 복호와 미사흔이 무사히 귀환한다면 놀지 자신의 가장 큰 측근이자 지지세력이 될 수 있었다. 실제로 놀지마립간 이후에는 왕의 형제들이 갈문왕으로 책봉되어 왕권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¹¹⁷⁾ 고구려에서 자립을 도모하고 왕권강화를 꾀하던 놀지는 즉위 다음해에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두 왕자의 귀국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놀지마립간이 동생들의 구출 문제를 위해 3명의 村干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박제상을 천거 받은 모습이 보인다.¹¹⁸⁾ 또한 『삼국유사』에는 이와 관련하여 君臣과 國中豪俠을 召集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¹¹⁹⁾ 이러한 장면은 놀지가 두 아우의 귀환을 위해 국정의 중심세력들로 추정되는 김씨족단 뿐만 아니라 여러 세력들, 심지어 지방의 촌간들까지도 소집하여 의논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국가 중대사에 지방세력가들까지 참여하여 의논한 예는 이전 시기까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지방세력의 召集은 지방통치와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의 친신라세력들이 이러한 놀지의 소집에 응하고, 또한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음으로서 지역에서의 그들의 권력기반을 강화해 나갔을 것으로 본다.¹²⁰⁾ 또한 왕의 입장에서 이들 지방 세력가들의 지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동관으로 대표되는 최상위 위세품을 사여함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지방에 대한 간접통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들이 천거한 박제상은 어떤 사람일까? 『삼국유사』에는 박제상의 부인 치술이 실

115)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134-135쪽, 지식산업사.

116) 알지신화는 김씨족단의 성장과 함께 원형이 만들어지고, 김씨에 의해 왕권이 독점되던 마립간 시기 초반에 1차 완성이 이루어지고 이후 진흥왕에 의해서 ‘金’이라는 성씨가 채택되고, 거칠부에 의해 역사서가 만들어지면서 완성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17) 복호는 귀환한 이후에 갈문왕으로 책봉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헌 기록상의 습보갈문왕·기보갈문왕으로 곧 지증왕의 아버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 놀지마립간 이전에는 왕의 아버지나 왕비의 아버지가 갈문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놀지마립간부터는 왕의 형제들 중에서 갈문왕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 선석열, 2003 「마립간기의 왕권과 갈문왕」 『신라문화』22집, 9-10쪽,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18) 『삼국사기』 권 제45, 박제상조 - 곧 놀지왕(訥祗王)이 즉위하자 말 잘하는 사람을 얻어가서 맞이해 줄 것을 생각하였다. 수주촌간(水酒村干) 벌보말(伐賣謨)과 일리촌간(一利村干) 구리내(仇里酒), 이이촌간(利伊村干) 파로(波老) 세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불러서 물기를, … 세 사람이 똑같이 대답하기를, “신들은 삼랑주간 [박]제상이 강직하고 용감하며 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제상]이 전하의 근심을 풀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19) 『三國遺事』 紀異 제1 奈勿王 金堤上. - 至十年乙丑王召集群臣及國中豪俠親賜御宴, 進酒三行衆樂初作. 王垂涕而謂群臣曰, ….

120) 양정석, 「신라 마립간기 왕의 통치형태 - 놀지마립간대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15집, 119쪽,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성의 딸로 기록되어 있다.¹²¹⁾ 물론 후대에 박제상을 높이는 과정에서 윤색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삼국유사』의 기록대로라면, 박제상은 실성의 사위가 되는 셈이고, 놀지와는 동서지간이 되는 것이다. 실성이 자신의 딸들을 통해 김씨와 박씨세력들을 아우르려고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본다면 박제상은 박씨세력의 실질적인 대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¹²²⁾ 즉 내물과 실성이 동서지간으로 왕위를 다투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놀지의 동서였던 박제상 역시 놀지의 유력한 경쟁자였을 수도 있다. 박제상 뒤에는 박씨 세력이 있었을 것이며, 이는 놀지가 쉽게 박제상을 제거할 수 없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¹²³⁾ 따라서 실성이 죽고, 그와 관련된 세력들이 축출되거나 강등될 때 그의 사위였던 박제상 역시 일시 지방으로 축출되었으나 놀지가 박제상을 다시 등용함으로써 박씨세력의 협력을 이끌어냈던 것 같다.¹²⁴⁾ 이는 일시 강등되었던 박제상이 놀지에 의해 다시 발탁되었고, 박제상의 희생으로 그의 부인은 국대부인으로 책봉되고, 딸은 미사흔의 부인이 되어 그의 가문의 위상이 다시 왕실에 편입된 것으로 증명된다.¹²⁵⁾ 놀지 재위 19년, 즉위 이후 두 번째로 시조묘에 친사했는데,¹²⁶⁾ 이는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박혁거세를 모시는 시조묘를 다시 친사했다는 것은 박씨세력의 지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놀지 시기에 추진된 고구려로부터의 자립 및 고구려 세력 축출은 김씨족단의 지지와 통합에 의한 세습체제 구축, 지방세력 및 박씨세력과의 협력이라는 신라 내부의 발전된 정치적 역량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놀지는 자립화라는 자신의 정치노선을 왕관의 양식에 점진적으로 드러냈으며, 정치적 지지세력의 도움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들에게도 같은 양식의 금동관을 하사함으로써 그들의 권위 또한 지지해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등장한 신라양식 금동관은 이러한 놀지마립간의 정치행로와 맞물려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121) 『三國遺事』 권1, 왕력1, 실성마립간 - “아버지는 미추왕의 동생 대서지 각간이고, 어머니는 예생부인 석씨로 등야 아간의 딸이다. …… 왕은 곧 치술의 아버지이다.”

122) 박제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각각 박씨와 김씨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이견이 있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이 박제상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 극적으로 과대 포장한 듯한 면이 많아 후대에 윤색이 된 측면이 농후하다. 박제상은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박씨로 보는 것이 여러 정황상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성씨가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는 성씨를 소급하여 기재하는 과정에서 계보 파악이 불철저했기 때문에 발생한 혼동 때문이라는 주장(이종서, 앞의 논문, 221쪽)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혈족이 먼저 성립되고 성이 후대에 채택되었기에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혼동이라고 보여진다.

123) 『삼국사기』열전의 “박제상은 파사 이사금의 5세손이며, 그의 할아버지는 아도 갈문왕이고 아버지는 파진찬 물품이다.”라는 기록은 박제상이 가진 배경이 제법 컸음을 의미한다.

124) 장창은, 위의 책, 116쪽.

125) 이 혼인은 당시 왕실 결혼이 근친혼 내지는 왕족들과 통혼하던 전례를 볼 때, 박제상이 왕족이 아니라는 것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진다.

126)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놀지마립간 19년조.

Ⅲ. 신라관의 완성과 제의정치

실성이나 눌지의 즉위가 고구려의 간섭과 왕실내부의 세력 갈등 속에 이루어졌던 반면 눌지의 맏아들 자비의 왕권승계는 왕위의 부자승계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자비의 등극을 통해 신라가 고구려의 굴레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왕권이 前代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그만큼 자비나 소지마립간은 실성이나 눌지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첫 출발을 한 셈이다. 그러나 자비와 소지에게 있어 가장 큰 숙제 역시 고구려였다. 선왕인 눌지의 자립화 정책은 결국 고구려와의 결별로 귀결되었고, 그것은 곧 강대국 고구려와의 전쟁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비와 소지는 고구려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왕권 강화 및 중앙집권화를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국정을 운영해나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드디어 신라관의 정점인 금관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었다. 화려한 금관의 완성이 당시 신라정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신라관의 완성과 함의

5세기 중엽 이후 드디어 금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교동금관을 제외한 5개의 신라금관은 모두 이 시기에 제작되었다. 재질의 변화뿐 아니라 도상의 변화도 보이는데, 중앙 3개의 직각수지형입식 양측에 2개의 녹각형 입식이 부착된 것이다. 여기에 前代에 비해 더욱 섬세한 연속점 무늬 및 볼록장식을 베풀었고, 수많은 보요장식과 곡옥을 달아 그 화려함을 더했다.

《표2》¹²⁷⁾를 통해 5개의 금관, 즉 황남대총북분금관·금관총금관·서봉총금관·금령총금관·천마총금관은 모두 같은 양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금관이 직각수지형 장식과 녹각형 장식을 갖추고 있으나 세부적인 무늬와 제작기법은 상이함을 보이는 것도 알 수 있다.¹²⁸⁾ 이러한 특징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금관의 상대 서열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¹²⁹⁾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세움장식의 들림각이 점차 직각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은 고정못의 변화, 세움장식 문양의 변화, 달개와 볼록 장식 수의 변화, 나뭇가지 모양 세움장식 결가지 수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관의 상대 서열을 정하였다. 즉 간소한 쪽에서 복잡한 것으로 변화했다는 큰 흐름 하에 각각 세부적인 요소를 검토하여 그 흐름을 황남대총 북분 → 금관총 → 서봉총 → 금령총 → 천마총의 순서로 보는데 대부분 일치한다.¹³⁰⁾

《표3》은 이 시기 신라관의 출토현황으로 마립간 후반부의 지방통치 일면을 보여준다. 경산 지역은 앞 시기부터 꾸준히 금동관이 출토되고 있어 이 지역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앞 시기에 비해 낙동강 유역의 가야 인근 지역인 대구, 창녕, 양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고구려와의 전시상황에서 후방인 가야세력을 단속하고 편입시키기 위한 신라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¹³¹⁾

《표1》, 《표2》, 《표3》을 통해 신라관이 양식의 완성을 보게 된 첫 사례는 황남대총 북분 출

127) 위의 표는 다음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이한상, 2006,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위원회, 2016, 『마립간 시기 I -중앙』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경상북도. 김병모, 2012,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이송란, 2004 『신라금속공예연구』 일지사.

128) 이한상, 2016 「금속공예품」 『신라의 건축과 공예』 신라연구총서18, 경상북도.

129) 이한상, 앞의 책, 86-103쪽.

130) 이한상, 위의 책, 89-90쪽. 이희준,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131) 이희준,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표2》 신라금관의 형태 및 편년

	황남대총북분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천마총
입식단수	3단	3단	3단	4단	4단
내각	94~98도	92~98도	93~96도	92~95도	90~93도
세움장식 연속점무늬	1줄	1줄	2줄	2줄	2줄
관테장식	2줄연속점무늬 +파도무늬	2줄연속점무늬 +파도무늬	2줄연속점무늬 +파도무늬	2줄연속점무늬	2줄연속점무늬 +파도무늬+등 근무늬
관테 볼록장식	1줄	1줄	3줄	3줄	3줄
곡옥 수	77	57	51	없음	58
보요(달개)수	89	130	122	154	382
높이(cm)	27.3	27.5	30.7	27.0	32.5
수하식	태환식수식6개	세환식수식2개	태환식수식2개	세환식수식2개	세환식수식2개
편년	5C 3/4	5C 4/4 전반	5C 4/4 후반	6C 1/4	6C 1/4
공반유물 및 특징	은제허리띠 명 문(夫人帶), 금 제관식3, 백화 수피관모 2	大刀명문(余斯 智王), 금동관 2, 금제관모1, 금 제관식1, 백화 수피관모2, 금 동관식1	십자형 內帽와 3마리의 새.	곡옥이 없음, 백화수피관모3	가장 화려함 금동관1, 금제 관모1, 금제관 식2, 금동관모 1, 백화수피관 모2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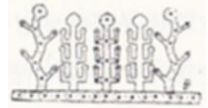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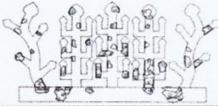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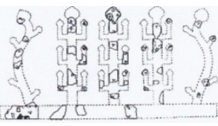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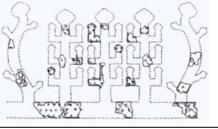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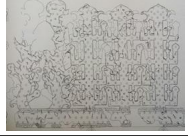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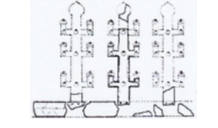
토 금관으로, 이를 기점으로 해서 양식의 변화를 보이게 됨을 알 수 있다. 황남대총남분에서 녹색형冠의 시원에 해당하는 과도기적인 양식이 시도 되었다가 황남대총북분단계에서 완성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황남대총 남분이 놀지왕릉이고 두 무덤이 쌍분인 것과 북분이 남분보다 늦게 조성된 점을 감안하면 황남대총북분의 피장자는 놀지왕 보다 늦게 죽은 그의 부인, 즉 놀지왕비로 추정된다.¹³²⁾ 夫人帶라는 명문이 새겨진 허리띠와 태환이식 등의 동반 유물들을 볼 때 피장자가 여성임을 알려주고 있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¹³³⁾

다음은 신라금관이 표현하고자 한 함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보통 부르는 수 지형 입식이 나무모양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실상은 ‘곧은 나무 입식’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추가된 녹색형 입식의 실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기존에는 북방

132) 놀지마립간의 비는 아로(阿)부인으로 남해차차웅의 동생 내지는 딸인 아로, 탈해니사금의 부인 아로와 이름이 같다. 나희라의 연구에 의하면 마립간기 초반까지 왕실여성으로 아로, 즉 ‘ar’이 사용된 이름들은 사제적인 직능을 가졌던 특별한 여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 나희라, 앞의 책, 123-125쪽.

133) 그리고 금관이 마립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역시 소유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곡옥이 달려 있지 않은 금령총 금관은 어린 왕자의 것으로, 서봉총 금관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어 금관이 마립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금관이 마립간 가족을 넘어선 김씨 귀족들까지 소유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마립간 시기 왕권의 위상을 고려해 본다면 금관의 소유는 마립간과 그의 직계 가족에 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5》 신라관의 출토현황② (5C 3/4 ~ 6C 2/4)

연대	지방	형식	경주	형식
5C 3/4 후반			황남대총북분 금관	
5C 4/4 전반	창녕 교동 7호		금관총 금관	
	경산 임2호 북주②			
5C 4/4 후반	대구달서 37호1실① 양산 부부총 경산 임당 5B1		서봉총 금관	
6C 1/4	경산 임당 6A		금령총 금관 천마총 금관	
6C 2/4	양산 금조총 강릉 초당동 B16호		보문리 부부총 금동관	
	경산 가천동168 傳상주금동관		* 위의 부부총 금동관의 도면은 동원선생기증금동관으로 부부총 금동관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됨(2011.『경주 보문동합장분』 국립경주박물관, 53쪽에서 전재).	

샤머니즘과 연결하여 사슴뿔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¹³⁴⁾ ‘녹각형 입식’은 관테의 중앙에 위치한 3개의 직각수지형 입식과 비교해서 양 측면에 위치한데다가 그 입식이 굽어 있어서 사슴뿔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황남대총남분 출토 금동관의 시원적인 녹각형 파편에서 논의해 보았듯이 ‘녹각형 입식’을 굳이 사슴뿔로만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¹³⁵⁾

북방샤머니즘에서 나무와 새뿐만 아니라 사슴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성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기는 하지만, 나무와 새에 비해 신성한 사슴에 관련된 신라 당대 및 후대의 유물이 거의 없고¹³⁶⁾ 사슴 숭배의 흔적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헌자료에서 사슴과 관련된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내물왕 21년 부사군에서 一角 사슴을 진상한 것과 무열왕 2년과 소성왕 1

134) 김원룡, 앞의 논문, 「신라 금관의 계통」 - 시베리아의 샤만관에 장식된 실지 녹각과 더불어 남러시아의 사르마트족의 묘에서 나온 금제관에 부착된 사슴과 수목의 실형이 신라금관 디자인의 모델이 되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샤만관을 신라의 왕이나 귀족이 썼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135) 엇가지는 뒤늦게 더해진 장식이기에 이를 굳이 사슴뿔을 형상화했다고 볼 여지가 적다. 다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신성한 나무와 사슴뿔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라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2010 『황남대총』 31쪽.

136) 1세기대 유물인 사슴머리 상(영천 어은동 출토)과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원삼국기의 향아리에 그려진 한 쌍의 사슴 형상과 같은 유물의 예는 사슴 숭배의 흔적일 수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나 멀다. 비슷한 시기 고구려벽화에 그려진 사슴은 주로 수렵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

년에 백록을 진상 받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사슴이 가지는 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백제와 고구려에 나타난 사슴에 관한 기록이 신라보다 많다. 그러나 거의가 수렵과 관련된 것으로 사슴송배로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 물론 주몽신화 속에 백록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슴이나 돼지가 제천행사에서 중요한 희생제물로 바쳐졌다는 관련 기록들이 있지만, 이를 신라사회에까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녹각형입식을 사슴뿔로 보기에선 사상과 문화적인 연계가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신라금관 역시 그 당시 사회의 정치·문화적 산물이기에 金冠을 만들었던 사회의 내재적 요인, 즉 마립간 시



도12. 진파리 7호분 고구려금동장식

기 신라인들의 관념 세계 및 문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고구려의 관모 장식이 고구려 건국신화를 표현하고 있다는 연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¹³⁷⁾ 진파리 7호분 출토 고구려 금동장식은 고구려 건국신화인 해모수 신화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한다(도12). 가운데 삼족오를 투각하고 그 주위에 용 두세 마리를 배치하였으며 마치 태양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과 같은 화염문이 새겨져있다. 이 화염문은 평양 대성구역에서 출토된 금동관에도 장식되어 있다(도4).

신라가 금관을 만들어 내던 마립간기는 김씨족단이 왕위를 독점하고, 김씨족단의 우월성 및 김씨왕권의 신성함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의 시조 신화, 즉 김알지 신화가 만들어지던 시기였다는 것은 ‘김알지 신화’와 ‘금관의 탄생’이 일정한 연관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김알지 신화는 ‘黃金’과 관련된 김씨족단의 정체성을 말해주며, 당시 지배자들의 무덤에서 쏟아진 수많은 황금유물들 역시 그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김알지 신화가 배태된 장소인 始林, 곧 鷄林은 신라금관의 모티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봉총 금관은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13. 서봉총 금관의 새장식

서봉총 금관은 다른 금관에 비해 독특한 도상을 가지고 있다. 십자모양의 內帽가 그것인데, 그 위에 3마리의 새가 가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서봉총금관은 여성의 관임으로 內冠의 형태가 일반적인 고깔형이 아니라 두 개의 관테를 십자형으로 교차시켜 접합한 형태의 內帽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십자형 內帽의 장식교차점 위에 가지가 뻗어 나왔고, 그 위에 3마리의 새가 앉아 있다는 점은 內帽의 장식을 통해 새와 관련된 무언가를 받

드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발굴 당시 이 새를 봉황이라 간주했고 이에 대해 반론이 제기된 적은 거의 없었다.¹³⁸⁾ 최근에는 스키타이 계통의 ‘그리핀’이라는 주장도 있지만¹³⁹⁾ 비약이 심해 받아들이기 힘들다. 새가 가지는 신성한 이미지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신라인뿐만 아니라 삼한지역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와 관련된 유물도 많고 신라관모 뿐만 아니라 고구려 관모에도 새장식은 필수 요소였다.¹⁴⁰⁾

137) 조진숙, 2010, 「신화를 통해 본 고구려 관모의 상징성」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38) 1926년 서봉총 발굴 당시 스웨덴(瑞) 황태자가 참가하였고, 그때 발굴된 금관에 3마리의 새장식이 있었기에 새를 봉황(鳳)으로 간주하여 고분 이름을 서봉총이라 명명했다.

139) 민병훈의 앞의 책, 32-39쪽.

140)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 분과, 2004, 『고대로부터의 통신』 192쪽, 푸른역사.



도14. 금관총 관모



도15. 금관총 금제장식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결부되어 내린 성급한 결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문제 역시 김알지 신화를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도16. 서봉총금관의 측면

상들은 김알지신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금관들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금관의 외관은 김알지가 하강했던 계림의 신성한 나무를 상징하고 內帽, 즉 관모에 장식된 새장식은 김알지를 매개해 준 신성한 '닭' 즉, '神鳥'를 상징한다고 하겠다(도 14, 15).

이렇듯 나무와 새가 주가 되는 김알지신화의 모티브에 갑자기 사슴뿔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宇宙麓으로서 사슴이 가지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굽은 양식에 대한 이



도17. 환상주금동관



도18. 지동2호 금동관

해는 사실 쉽지 않다. 나무와 뿔이라는 이미지를 굳이 분리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신성한 나무와 사슴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宇宙樹, 宇宙麓의 의미를 동일하게 지니고 있고, 나무와 뿔이 뺏어 나가는 모양 또한 비슷하기 때문이다.¹⁴³⁾ 그러나 쇠퇴기의 관으로 추정되는 傳상주금동관(도21)이 5개의 입식 모두 직각수지형 입식만을 갖춘 것과 4개의 직각수지형입식만을 갖춘 안동 지동 2호분 금동관(도22)의 존재는

가야나 신라토기 중에 각종 오리모양 토기들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의 새에 대한 의식 세계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금관에 새장식이 표현된 것은 신라인들의 정신세계를 말해주는 또 다른 도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새들이 봉황이나 그리핀이라는 근거는 빈약하며, 신성한 새나 왕권을 상징하는 새는 무조건 봉황과 연결시키려는 후대인의 사고 내지는 신라금관을 무조건 동서문화 교류의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봉총 금관의 도상들은 김알지신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금관들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금관의 외관은 김알지가 하강했던 계림의 신성한 나무를 상징하고 內帽, 즉 관모에 장식된 새장식은 김알지를 매개해 준 신성한 '닭' 즉, '神鳥'를 상징한다고 하겠다(도 14, 15).
이렇듯 나무와 새가 주가 되는 김알지신화의 모티브에 갑자기 사슴뿔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宇宙麓으로서 사슴이 가지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굽은 양식에 대한 이

해는 사실 쉽지 않다. 나무와 뿔이라는 이미지를 굳이 분리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신성한 나무와 사슴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宇宙樹, 宇宙麓의 의미를 동일하게 지니고 있고, 나무와 뿔이 뺏어 나가는 모양 또한 비슷하기 때문이다.¹⁴³⁾ 그러나 쇠퇴기의 관으로 추정되는 傳상주금동관(도21)이 5개의 입식 모두 직각수지형 입식만을 갖춘 것과 4개의 직각수지형입식만을 갖춘 안동 지동 2호분 금동관(도22)의 존재는

141) 김두진, 1999 「신라 알지신화의 형성과 신궁」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327-332쪽, 일조각.
142) 『三國遺事』 卷 第四 義解第五 歸竺諸師- 천축인은 신라를 구구타에설라(矩矩吒醫說羅)라고 하는데 구구타는 계(雞)를 말하고, 에설라는 귀(貴)를 말한다. 그 나라는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그 나래신라]는 계신(雞神)을 공경하여 높이기 때문에 관에 깃을 올려서 장식한다”라고 한다.
143) 스키타이인들은 사슴뿔이 나무와 유사한 형태로 한 줄기에서 여러 갈래의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사슴뿔에 世界樹와 같은 영험한 의미를 부여했다. - 민병훈의 위의 책, 34쪽.

다. 즉 녹각형입식이 사슴뿔만을 상징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冠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도상을 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녹각형’ 장식은 실제로 모양이 변형된 나무입식에 다름없는 것으로 ‘굽은 나무 장식’ 내지는 ‘엇가지형 입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실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¹⁴⁴⁾ 즉 2개의 굽은 나무 장식은 금관을 더 화려하게 보이고 자 한 의도 내지는 신성한 나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신성한 숲, 즉 鷄林을 풍성하게 나타내기 위한 의도에서 부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알지가 하강했던 鷄林이 6세기 초까지 사용된 신라의 초기 국호 중 하나였다는 점은 계림이라는 장소가 신라인들에게 있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말해준다.

금관이 정치적인 관임과 동시에 제의와 관련된 종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라금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상인 세움장식 단 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5개의 금관 중 초기의 것으로 편년되는 3개의 관은 3단 입식을, 후대의 것인 금령총과 천마총 금관은 4단 입식을 가지고 있다. 줄곧 3단 입식을 보여 왔던 신라관에 4단 입식이 나타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수지형 입식이 신성한 나무를 상징한다고 본다면 3단 수지형은 7개의 가지를 갖춘 나무이고, 4단은 9개의 가지를 갖춘 신성한 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개 및 9개의 가지는 神木 사상을 가진 샤머니즘적인 맥락과 관련을 지어 해석할 수 있다.¹⁴⁵⁾ 즉 알타이 민족의 샤머니즘적인 우주관에는 천상의 세계가 주로 7층 또는 9층의 위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하늘과 땅의 중개자인 샤만은 반드시 그들만의 신성한 나무를 가지고 있고, 천상 여행을 위한 의례를 행할 시에 7개 및 9개의 눈금을 새긴 나무를 세우는 등의 의례행위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¹⁴⁶⁾ 신라관의 입식 가지 수와 관련하여 상당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다. 백제에서 제작된 칠지도 역시 7개의 가지를 표현한 신성한 칼이라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신라관이 주로 제의와 관련하여 사용된 관이며, 관에 표현된 도상들 또한 김씨왕족들이 가졌던 시조신화와 함께 신라인들의 우주관과 관련지어 표현되어 있다고 본다면 입식 단수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초기에 3단 입식에 나타난 7개의 천상세계는 후대로 가면서 4단 입식으로 바뀌어 9개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라관을 더욱 풍성하고 화려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¹⁴⁷⁾ 그리고 신라관 입식의 모든 끝이 ‘광명’을 의미하는 보주형 장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점은 신라관이 샤머니즘적인 제천신앙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¹⁴⁸⁾ 이런 점에서 신라관은 시조신앙과 샤머니즘적인 제천신앙을 함께 표현한 관이 되는 셈이다. 즉 그들의 시조를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며, 따라서 김씨왕권을 하늘의 권위에 잇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라금관의 실체는 김알지 신화의 표현이자 제천신앙을 함께 표방하는 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하늘에 잇댄 김씨왕권의 신성함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볼 때, 소지왕의 신궁설립 및 친사라는 종교적인 의례는 김씨마립간 및 김씨족단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정

144) 그러나 추가된 2개의 입식이 굳이 굽은 모양으로 표현된 점은 좀 더 연구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슴뿔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샤머니즘에서 사슴이 宇宙鹿으로서 가지는 위상은 신라관이 가지는 제의적인 기능과 무관하지 않기에 사슴뿔로 해석한다고 해서 신라관이 가지는 의미가 희석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145) 이송란의 앞의 논문(2002), 19쪽. 미르치아 엘리아데, 1998 『샤머니즘』 253-257쪽, 까치.

146) 우노 하르바, 2014 『샤머니즘의 세계』 보고서. 50-55쪽, 470-471쪽.

147) 입식단수와 관련하여 신라관의 입식이 3단 내지 4단인 것을 왕의 계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김병모의 앞의 책, 117-119쪽).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라관의 출토양상, 즉 편년 및 출토지역 등을 고려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특히 4단 입식을 갖춘 금관이 출토된 천마총에서 3단 입식의 금동관이 함께 출토되었고, 지방에서도 동시대에 하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들 중에서도 段數 및 형태가 상이함을 보이는 예가 있음은 단수와 계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48) 이송란, 2004 『신라 금속공예 연구』 222쪽, 일지사.

치적인 행위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소지왕이 신궁설립을 주도하고 직접 친사한 것은 한번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궁에서 전문적인 제의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神官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며, 남해왕의 親妹인 아로의 예를 볼 때, 그 신관은 왕족 여성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⁹⁾ 실제 황남대총북분과 서봉총 금관의 주인은 여성으로 판명되어 금관의 제의적인 기능을 엿볼 수 있게 한다.¹⁵⁰⁾ 신라의 초기 왕들은 사제왕적인 면모를 가졌으며, 마립간 시기에도 왕의 신성한 면모가 부각되었고, 이후 중고기대에도 전륜성왕 및 석가족을 칭하는 등 신라의 왕들이 그들의 권위를 유독 종교적인 면에 기대어 표현하는 예가 많음을 볼 때,¹⁵¹⁾ 신라금관이 신라정치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을 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정가능하다고 본다. 특별히 시조사당이나 신궁에서 행해졌을 각종 의례들은 금관의 위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행사였을 것이다. 이때 각 지역에 대표자들 및 왕경의 귀족들은 하사받은 금동관을 착용하고 그 의례에 함께 하였을 것이며,¹⁵²⁾ 종교적인 권력, 즉 제의권까지 장악한 마립간 및 그 가족들은 화려한 금관 및 각종 위세품들로 그들의 위상을 한껏 드러내었을 것으로 보인다. 친사가 잦았던 소지왕대의 빈번한 제의는 금관이 가진 기능을 충분히 드러내는 정치적인 장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신라관의 형성을 정치사의 맥락, 즉 고구려와의 관계 및 왕권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4》는 각 시기 주요 정치적인 사건과 신라관의 변화 및 실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관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고 완성되어 갔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 외적으로는 고구려와의 관계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김씨왕권의 성장이라는 요인이 있었다. 신라는 마립간 초기에 고구려의 금공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단순한 모방을 넘어 신라적인 도안으로 재창조해 나갔다. 이후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신라관에서 고구려적인 색채가 짙은 요소들이 조금씩 배제되어 갔으며, 대신 신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소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으나 금관을 화려하게 하는 기법들은 꾸준히 사용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보요장식¹⁵³⁾과 누금기법¹⁵⁴⁾이다. 김씨 마립간들을 위해 신라금관을 조형한 신라장인들은 초기부터 보요장식 및 누금기술 등의 외래기법들을 고구려로부터 수용하여 신라 금속공예에 꾸준히 사용하였으며, 신라관을 더욱 화려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형해 나갔다. 애초에 신라관이 발생할 때부터 마립간들은 그들의 출자 및 왕권의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冠을 제작했을 것이다. 그러한 의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화되어 하늘에 잇댄 김알지 신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관으로 완성되었다. 김씨족단 및 김씨왕권의 시조를 모신 신궁은 이를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의례장소이자 정치적인 장소였을 것으로 보이며, 신궁에서의 의례는 김알지신

149) 나희라의 앞의 책, 121-128쪽.

150) 이송란, 2002 「신라관의 성립과 시조묘 제사」 『미술사학연구』 235권, 한국미술사학회.

151)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152) 이송란의 앞의 논문(2002), 14쪽.

153) 이 보요장식의 기원에 관해서는 그 시원을 아프카니스탄 킬라테페 유적의 금제 수지식 보요관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이 수지식보요관이 3세기 이후 중국의 선비족의 관식에 영향을 주었고, 선비족 보요관이 고구려의 관장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결국 황남대총남분의 은관은 선비의 보요관이 고구려로 전해져서 다시 신라로 이어지는 계보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송란, 2004 『신라 금속공예 연구』 280-303쪽, 일지사.

154) 누금세공이란 금실이나 금알갱이를 얇은 금판에 장식하여 만든 금공품이나 그 기술을 의미한다. 누금세공기술은 기원전 2,500년경 시작된 금속공예기법으로 그리스에서 고도로 발달하였고 중국에는 전국시대에 전해져서 漢代에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낙랑에 영향을 주었다. 위진남북조시대에 고구려와 신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주로 금제耳飾에 많이 쓰였다. 신라금관에는 주로 관드리개, 즉 수하식 장식에 사용되었다. - 이송란, 앞의 책, 304-359쪽.

화의 재현을 포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관의 완성은 곧 정점에 오른 마립간의 위상을 보여주며 신라가 더 이상 고구려의 속국이 아니며 고구려와 맞설 수 있는 당당한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표4》 마립간기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변화 및 신라관의 발달

	1기(392~417)	2기(418~454)	3기(454~500)
관계	밀착관계	자립화 시기	적대시기
분기점	실성을 볼모로 보냄(392) 고구려의 도움으로 눌지왕 즉위(417)	복호구출(418) 눌지왕의 고구려군 축출	고구려의 공격 개시(454) 지증왕 즉위(500)
영향	고구려의 보호 아래 대내외적인 발전 도모, 북방선진문화의 유입	나제동맹의 성립, 고구려의 관복사여 의식, 역대 왕릉 수리, 김알지신화의 성립.	고구려와의 전쟁대비 및 전시체제의 가동, 성곽의 수축 및 정비, 왕경과 지방의 재편, 신궁설치,
신라대관의 형태	시월기 고구려관모 장식의 영향 깃털형, 초화형, 삼엽문	발전기 3단 직각수지형입식의 성립	완성기 3단(4단)의 직각수지형입식 + 2개의 엇가지형입식
출토 예	<u>의성 탑리1곽 금동관</u> 북천동 10·11호분 금동관	황남대총 남분의 금동관 <u>대구 달성 37호1실② 금동관</u>	<u>황남대총북분 금관</u> 포함 5개의 금관, 양산 부부총 금동관
실례			

2. 자비·소지마립간기의 체제개편과 제의정치

이 장에서는 마립간 후반부인 자비마립간(458-479년)과 소지마립간(479-500) 代 고구려와의 전시체제하에서 단행된 체제정비와 권력의 재편 및 왕권강화와 관련된 제의정치에 초점을 두고 『삼국사기』 기록을 따라가면서 고찰하겠다.

자비마립간은 초반에 왜의 잇따른 공격으로 변경에 2개의 성을 쌓고 군대를 크게 사열하고 전함도 수리하게 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¹⁵⁵⁾ 재위 11년(468)부터는 고구려에 실직성을 빼앗긴 이후 니하성(泥河城)을 쌓는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축성 및 수리를 시작하여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였다.¹⁵⁶⁾ 또한 왕경의 방·리 명을 정하는 등 행정구획을 재편하여 왕경을 쇄신했다.¹⁵⁷⁾ 왕도의 쇄신은 기존 6부체제의 재정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탁과 사탁부 중심의 집권력이 더욱 강화되었다.¹⁵⁸⁾ 행정구획의 재편은 고구려의 실직성 공격이 이루어진 다음해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구려에 대비한 전시체제 가동이 신라 내부의 개혁에 탄력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16년에는 아찬 별지와 급찬 덕지를 좌·우장군으로 삼는 등 군제개편도 이루어졌다.¹⁵⁹⁾

지방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축성공사는 비록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 즉 전시체제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에 따르는 일련의 효과 또한 컸다. 축성공사에 인력을 징발하고 동원하는 것은 지방민을 조직화하는데 기여했다.¹⁶⁰⁾ 또한 이들을 동원하기 위해 지방 유력자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친경주세력들이 급부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왕은 이러한 지방세력들을 적절히 이용하여 축성 경비 부담이나 인력동원 등을 협조 받고, 그 반대급부로 금동관으로 대표되는 각종 위세품을 하사함으로써 그들의 지지기반을 보증해 주었을 것이다.¹⁶¹⁾ 이렇듯 전시체제의 가동은 신라 내부의 개혁을 별 저항 없이 개혁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왕권은 높아지고 지방이 재편되는 등 본격적인 중앙집권화의 전초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지마립간 재위 3년(481), 드디어 고구려가 15년 만에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이때 고구려는 신라의 동북 방면 7개의 성을 빼앗고 미질부로 진군해 왔다.¹⁶²⁾ 신라는 백제·가야의 구원군과 협동작전을 감행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고구려를 패퇴시켰다. 이후에도 496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신라를 공격해 왔고 신라는 대부분 물리쳤다.¹⁶³⁾ 고구려의 공격이 한 차례에 불과했던 자비마립간에 비하면 소지마립간은 재위기간 대부분 고구려와의 전투를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와중에 왜병의 침입이 있었고, 큰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도 자비마립간 대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¹⁶⁴⁾ 계속되는 전란과 자연재해 속에서 소지마립간은 백성들을 위무하고 죄수들을 사면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한편, 장정들을 징발하여 주요 城들을 고쳐 쌓아 전투에 대

155)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자비마립간 6년, 10년조.

156)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자비마립간 11년, 13년, 14년, 17년조.

157)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자비마립간 12년조.

158) 후보돈, 2006 「신라의 부와 부체제」 『역사와 세계』 효원사학회.

159)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자비마립간 16년조.

160) 후보돈, 2016 「새로운 지배질서의 모색」 『신라의 건국과 성장』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2권, 경상북도.

161) 후보돈, 1998 『신라 지방통치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162)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소지마립간 3년조.

163)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소지마립간 6년, 11년, 16년, 18년조.

164)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소지마립간 2년, 4년, 5년, 8년, 14년, 16년, 18년, 22년조-말갈과 왜의 공격이 4번 있었음. 자연재해는 8번으로 재위기간이 비슷한 자비왕대에 비해 2배 정도 많다.

비하였다. 사방에 우편역을 설치하고, 담당 관청에 명해 관도를 수리하여 지방과의 연락을 신속하게 하여 지방지배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월성과 궁실도 수리하였다. 농사를 장려하고 서울에 시장을 열어 사방의 재화를 유통시키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에도 노력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왕실 혼인을 통해 백제와의 동맹도 공고히 했다.¹⁶⁵⁾

이러한 소지의 노력 가운데에서도 가장 특기할 만한 것 가운데 하나는 신궁설치와 같은 제의와 관련된 정치적 행보이다. 신궁설치는 재위 9년(487) 봄 2월에 이루어졌는데, 신궁설치가 있기 2년 전에는 몸소 시조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사당지기 20家を 추가로 배치했다.¹⁶⁶⁾ 신라의 왕들이 즉위 다음해 2월에 하는 시조사당 친사는 일종의 즉위의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위 7년에 다시 시조사당에서 친사하고, 사당지기 20家を 추가하는 등의 행보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이것은 시조사당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 가운데서 시조사당의 위상을 끌어 올려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남해이사금이 시조사당을 설치한 이래로 석씨 이사금 시기뿐만 아니라 소지마립간 대까지의 김씨 마립간들도 모두 시조사당을 친사했다. 그러나 2번에 걸쳐 친사한 예는 놀지마립간과 소지마립간밖에 없다. 놀지마립간이 박씨세력을 다시 지지기반으로 삼으면서 그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시조사당을 거듭 친사했듯이 소지마립간의 시조사당에 대한 거듭된 친사도 같은 맥락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특별한 행보로 파악될 수 있다. 강대국 고구려와의 계속된 전쟁 수행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신라의 국왕으로서 신라의 건국시조를 부각시켜 여타 정치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¹⁶⁷⁾

이에 더하여 수묘지기 20家を 더해주는 조치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시조묘만을 돌보기 위해 20家を 증설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소지가 21대 왕인 점을 염두에 두면 역대 20명의 왕들 모두에 대한 예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이는 형식상 역대 왕릉에 각 1家씩 수묘호를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三姓 왕실집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김씨왕실의 권위를 합리적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¹⁶⁸⁾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소지마립간은 전격적으로 나을(奈乙)에 신궁을 설치했다.¹⁶⁹⁾ 신궁설치를 앞두고 시조사당에 특별히 친사한 것을 염두에 두면 나을에 설치한 신궁은 시조사당과는 그 성격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시조사당과 똑같은 기능 및 같은 主神을 모신다면 굳이 신궁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건국시조인 박혁거세를 위한 제의 장소를 또 다시 건립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마립간기에 그 위상이 현격히 높아진 김

165)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소지마립간 9년, 10년, 11년, 12년, 14년, 15년, 18년조.

166)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소지마립간 7년조.

167) 신라의 건국은 6촌 세력들의 추대에 의해 박혁거세가 왕위에 오름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을 상기시킴으로서 신라의 지배세력들이 건국시조에 대한 의례를 통해 다시 한 번 국왕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주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본다. 즉 이러한 건국시조에 대한 의례를 통해 왕권을 신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연출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얻어내려고 하였고, 또 현재의 권력 관계를 원초적인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권력을 향한 여러 경쟁자들로 하여금 현실의 정치적 관계를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나희라, 2005『신라의 건국신화와 의례』 『한국고대사연구』39집, 77쪽, 한국고대사학회.

168) 선석렬의 앞의 논문, 14-15쪽

169)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소지마립간 9년조: “봄 2월에 나을(奈乙)에 신궁을 설치하였다. 나을은 시조가 처음 태어난 곳이다.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조: “제 22대 지증왕은 시조가 내려와 태어난 곳인 나을에 신궁을 세워 그를 제향하였다.”

- 신궁설치에 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어왔으나 아직 합의된 의견은 도출되지 못한 상태이다. 신궁설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기에 관해서는 소지왕대설, 지증왕대설, 절충설로 나뉘며, 주신에 관해서는 박혁거세설, 김씨설(김알지, 미추, 성한, 나물), 박혁거세와 알령설, 天地神설 등으로 나뉘어 있다.

씨족단과 김씨왕권의 신성함 및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신격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김씨 왕으로서 박씨인 건국시조에게 즉위의례를 해야 하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물마립간 이후 조금씩 이루어져 오고 있던 김씨왕권의 신성화 작업이 전시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이 가져다 준 왕권의 강화 및 권력의 재편으로 김씨를 主神으로 한 신궁설립을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

내물 이후에 김씨가 왕권을 독점했고, 눌지 이후에는 왕권의 부자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또한 副王이라고 할 수 있는 갈문왕의 지위 역시 왕의 형제나 가까운 부계 친족에서 부자계승으로 이어가고 있었으며, 당시의 김씨 왕실이 심한 내부 근친혼을 행하고 있었음을 볼 때 소지마립간 당시 김씨 왕실이 부계 계보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⁷⁰⁾ 따라서 그에 기반한 大小의 부계 친족집단이 중요한 사회조직으로 기능하면서 자신들의 부계 계보상 가장 정점에 있는 자를 시조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궁의 主神은 김씨족단의 시조인 김알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것은 눌지마립간 대에 있었던 역대원릉 수증기사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김씨왕권의 신성화를 통해 김씨세력을 포함한 여타 세력들의 협력과 지지를 얻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인 행보로 김씨왕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궁설치 전, 소지왕의 두 번째 시조사당 친사는 결국 신라왕들의 마지막 고별 친사가 되었던 셈이다.¹⁷¹⁾ 실제로 소지마립간이 신궁설립 후 재위 17년(495) 정월에 신궁에 직접 친사한 이후 지증왕을 필두로 신라왕들의 즉위의례는 신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의와 관련된 행보는 소지마립간의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소지마립간 대의 주요 업적은 대부분 2번째 시조사당 친사와 신궁설치 직후에 이루어졌다.¹⁷²⁾ 또한 신궁설치 다음해인 소지마립간 10년(488) 봄에 일선군에 거둥하여 백성들을 위문하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죄수들을 사면하는 등 왕의 덕을 드러내는 행보를 보였다. 마침 6월에 東陽에서 눈이 여섯 개이고 배 밑에 글자가 쓰여 있는 거북을 바쳤다는 기록은 유의미하다.¹⁷³⁾ 즉, 이것은 왕자의 덕이 밝고 잠잠하게 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¹⁷⁴⁾ 소지마립간이 전시체제하에서도 순탄한 정치행보를 보였으며, 백성들의 지지까지 받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면에서 시조사당 친사, 역대원릉에 대한 수묘가 증치, 신궁설치 및 친사라는 제의행위는 소지마립간의 국정 운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정치행위였던 것이다. 즉 소지마립간은 이러한 제의정치를 통해 국론을 통합하고 국내의 여러 세력집단을 결집하는 동시에 김씨왕권을 더욱 강고하게 하는 등 중앙집권화를 위한 지배체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할 수 있

170) 강종훈, 1994, 「신궁의 설치를 통해 본 마립간기의 신라」 『한국고대사논총6』 197-198쪽,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71) 신라 하대 3명의 왕들(40대 애장왕, 41대 헌덕왕, 42대 흥덕왕)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의 왕들은 신궁에서 즉위의례를 행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미추왕죽엽군조」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혜공왕대에 와서는 혁거세에 대한 제사의 격이 미추왕릉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 『三國遺事』紀異 未鄒王 竹葉軍: ‘… 非末鄒之靈無以遏金公之怒, 王之護國不爲不大矣. 是以邦人懷德與三山同祀而不墜, 躋秩于五陵之上稱大廟云.’

172) 재위 6년 고구려의 2차 침입을 막은 소지는 7년에 시조사당을 친사하고 수묘 20가를 증치했다. 8년에는 일선군 땅의 장정 3천명을 징발하여 삼년산성과 굴산성을 고쳐 쌓았고, 9년에 신궁을 설치한 후 사방에 우편역을 설치하고 관도를 수리하고 월성을 수리하는 등 일사천리로 개혁을 진행시켰다.

173)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3, 소지마립간 10년조.

174) 『송서』권28 符瑞志에 “明帝泰始二年八月丙寅 六眼龜見東陽長山 文如爻卦 太守劉懿以獻”라 하여 東陽에서 눈이 여섯 개인 거북이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신라에서의 동양은 어떤 지명인지 알 수가 없다 - 정구복 외4 번역 『역주삼국사기3』 주석편(상), 98쪽,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게 되었다. 통상 시조사당에서의 의례에서 시조와 관계된 의례, 즉 박혁거세의 탄강 및 사로 국 건국과 관련된 행위들이 재현되었던 것으로¹⁷⁵⁾ 이해되는 만큼, 신궁의례의 내용 또한 김알지 신화와 관계된 의식들로 채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적인 의례행위는 김씨왕권의 신성함을 뒷받침하는 극적인 요소가 되었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각종 종교 의례에서 하늘에 있던 김알지 신화가 표현된 금관이 사용되었고, 왕권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을 것이다.

소지마립간의 이러한 업적 뒤에는 분명 고구려와의 전시상황이 준 탄력성이 작용했기에 가능했지만, 그 이전에 김씨세력들의 통합된 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씨족단은 잠시 대서지계와 말구계로 분열되어 갈등을 겪었지만, 눌지마립간 대에 들어와 통합이 되고, 전시체제하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자비와 소지마립간의 개혁에 의해 완전한 통합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물의 직계로서 신궁 설립을 주도하고 김씨세력과 결속을 다지며 왕권을 강화했던 소지마립간의 가장 큰 약점은 왕위를 물려 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들이 없던 소지마립간이 고구려의 옛 고지였던 경북 북부지역, 날이군을 순행하다가 만난 벽화를 통해 아들을 낳은 기사가¹⁷⁶⁾ 그의 마지막 업적으로 기록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지만 이를 통해 소지마립간이 순조로운 왕위계승을 위한 아들의 존재에 대해 얼마나 집착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소지의 숨겨 둔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지증이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내물왕 방계가 집권하게 되었다.

지증왕대에는 '신라'라는 국호와 왕호가 확정되었으며, 주·군제로 불리는 지방통치제도도 마련되었다.¹⁷⁷⁾ 그 외에도 순장의 금지, 우경의 실시, 상복법의 제정, 소경의 설치 등,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이 이루어졌다.¹⁷⁸⁾ 이러한 과감한 개혁 조치들은 지증왕의 왕권이 前代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왕권의 강화가 공식적인 제도 및 불교라는 고등 사상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이제 신라의 왕들이 더 이상 화려한 금관으로 왕권의 신성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신라금관은 오히려 그 위상을 잃어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관은 여러 변형들이 단편적으로 나오다가 6세기 중엽 이후에 자취를 감추게 된다. 신라관의 소멸 역시 신라정치와 맞물려 있다. 신라가 고구려 및 백제와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지방관의 파견 및 관료체제 정비, 불교의 공인 등 중앙집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완전하게 갖추게 되자 더 이상 화려한 금관 및 금공예품을 그 권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특히 불교가 왕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내세에 대한 사상까지 바꿔 놓음으로 인해 거대한 분묘의 축조 및 많은 부장품을 묻던 문화까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립간 및 그를 뒷받침하던 세력들을 위해 각종 위세품을 만들어내었던 신라의 황금문화는 불교문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고 금관은 자취를 감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175) 나희라의 앞의 책, 87쪽.

176) 『삼국사기』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22년조.

177) 『삼국사기』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4년·6년조.

178) 『삼국사기』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3년·5년·15년조.

맺음말

新羅冠은 마립간기라는 특정한 기간에 제작된 大冠으로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신라양식이라 불릴 수 있는 정형화된 관으로 발전했으며, 마립간기 신라정치의 일면을 담고 있다. 이에 신라관의 변화과정을 신라정치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당시 신라사회와 정치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추동원인으로 고구려와의 관계 변화 및 김씨왕권의 강화에 주목하고, 고구려와의 관계 변화에 따른 시기별 신라관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를 주도한 김씨왕권의 강화를 중심으로 신라정치의 일면을 함께 고찰해 보았다.

마립간기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변화는 크게 3시기, 즉 밀착시기, 자립화 시기, 적대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시기에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아래 정치·문화 전반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이 시기에 유입된 고구려 문화 및 고구려를 통해 들어온 북방 선진 문화는 후진적이었던 신라사회의 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특히 고구려를 통해 들어온 금속공예 기술은 신라의 황금문화를 꽃피우게 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초기의 은·금동관들, 즉 깃털형 은·금동관과 삼엽문 장식의 초화형 금동관들은 신라관의 성립에 끼친 고구려의 영향을 잘 보여 준다. 초기 신라관을 탄생시킨 것은 마립간기를 열고 배타적인 김씨왕권을 출발시킨 내물왕과 김씨족단이였다. 그러나 고구려에 대한 과도한 의지 및 신라내부의 세력 다툼은 고구려에 대한 신라의 종속을 가속화시켰는데, 그러한 상황 역시 초기의 신라관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김씨왕권을 중심으로 분열된 세력들을 다시 통합한 신라가 점차 고구려의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서서히 자립화를 꾀하고, 신라와 백제가 나제동맹을 체결하여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대항하던 시기이다. 이에 신라를 회유하기 위한 장수왕의 복식사여 의식이 강요되었고, 이러한 복식사여의 경험은 지방수장층에 대한 금동관 및 위세품 사여의 형태로 신라의 지방통치에 적극 활용되었다. 또한 역대왕릉수습을 통해 역대 왕들의 계보가 정리되고, 김알지신화 역시 이때 1차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신라관은 눌지왕의 자립화 정책과 맞물려 고구려적인 색채를 벗어나 김알지신화를 모티브로 한 ‘3단 직각수지형’이라는 신라양식 신라관의 기본 뼈대를 갖추게 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고구려와 결별한 신라가 고구려와의 전쟁대비를 위해 전시체제를 운영하면서 축성 사업 및 체제개편을 단행해 나갔던 시기이다. 각종 개혁들의 추진과정 속에 신궁설치 및 종교적인 제의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하에서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지방세력의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지방세력가의 지나친 성장에 대한 통제 및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방통치에 금동관으로 대표되는 위세품의 사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방통치에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다. 3개의 직각수지형입식에 2개의 엇가지형입식을 갖춘 5개의 신라금관이 만들어져 신라관의 定形이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녹각형 입식’을 ‘엇가지형입식’으로 상정하였으며, 신라관에 표현된 도상들이 실은 김알지 신화를 표현해 놓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소지왕대에 나타나는 신궁설치를 비롯한 빈번한 제의행위들에 집중하고 제의와 관련된 금관의 기능을 추정해보았다. 소지마립간대의 신궁설치는 김씨족단 및 김씨왕권이 박·석씨 족단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서서 제의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하였음을 공표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신궁의 주신은 마립간기 김씨족단의 정체성이 잘 표현된 신화를 가진 김알지로 볼 수 있으며, 신궁에서의 제사의례에서는 김알지신화의 재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의행위를 통해 김씨족단의 우월성 및 왕권의 신성함을 드러냄으로써 김씨족단을 포함한 여타 세력들의 자발적인 복종 및 협력을 이끌어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의 시

에 사용된 신라금관에는 이러한 김씨왕권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요소들, 즉 김알지신화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왕권을 하늘과 연관 시키는 요소들로 채워졌다. 따라서 신라금관은 김씨왕권의 정체성 및 신성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마립간 초기 고구려의 종속국가로 전락했던 신라가 이제 고구려와 맞설 수 있는 당당한 국가로 성장했음을 화려하게 드러낸 매우 정치적인 관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마립간기의 신라는 고구려로 부터의 자립화 및 왕권강화라는 시대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중앙집권국가의 서막을 열었으며, 신라금관은 그 과정에서 생겨나 시대적인 역할을 잘 감당한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제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신라관을 이루는 한 요소인 관모와 관식들에 대한 양식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과 퇴화기 신라관들의 변모과정 또한 정치사의 관점에서 새롭게 고찰해보아야 할 필요를 절감하면서 차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보고서

정구복 외 번역, 2011, 『역주 삼국사기』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최광식, 박대재 역주, 2015, 『삼국유사』고려대학교출판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 history.go.kr).

1994,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985,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경주금관총 발굴조사보고서, 경주 금관총』 경주시.

2011, 『경주보문합장분』보고서, 국립경주박물관.

2000, 『울산 조일리 고분군』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도록, 2010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국립중앙박물관.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위원회, 2016, 『마립간 시기 I -중앙』경상북도.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위원회, 2016, 『마립간 시기 I -지방』경상북도.

2. 저서

이한상, 2006, 『황금의 나라 신라』김영사.

이한상 외, 2009,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동북아역사재단.

주보돈, 1998, 『신라 지방통치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장창은, 2008, 『신라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 관계』 신서원.

김용성, 1998, 『신라의 고총과 지역집단-대구·경산의 예』 춘추각.

-----, 2010,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이희준, 2008,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이송란, 2004, 『신라 금속공예 연구』 일지사.

전호태, 2007, 『자료로 본 한국고대의 역사1』 UUP.

-----, 1989,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풀빛.

-----, 2016, 『고구려 생활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6, 『고구려 벽화고분』 돌베개.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김병곤, 2003, 『신라왕권 성장사 연구』 학연문화사.

-----, 2015, 『영남의 고고학』 사회평론.

- 전덕재, 1996, 『신라 6부체제 연구』 일조각.
 -----, 2009,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김두진, 1999,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채미하, 2018, 『한국 고대 국가제의와 정치』 해안.
 -----,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김병모, 2012,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이난영, 2000, 『한국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출판부.
 민병훈, 2015, 『실크로드와 경주』 통천문화사.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 분과, 2004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권오중 외, 2005, 『고구려의 국제관계』 연구총서 05, 고구려연구재단.
 우노 하르바, 2014, 『알타이 민족들의 종교적 표상, 샤머니즘의 세계』 보고서.
 미르치아 엘리아데, 1998, 『샤머니즘, 고대적 접신술』 까치.
 정수일, 1992, 『신라·서역교류사』 단국대학교 출판부.
 최병현, 1992,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권오영 외 5인, 『고고자료에서 찾은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위원회, 2016, 『신라의건국과성장』 경상북도.
 -----, 2016, 『신라의 체제 정비와 영토 확장』 경상북도.
 -----, 2016, 『신라의토착종교와 국가제의』 경상북도.
 -----, 201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국제교류』 경상북도.
 -----, 2016, 『신라의 건축과 공예』 경상북도.
 -----, 2016 『유적과유물로본신라인의삶과죽음』 경상북도.

3. 논문

- 이한상, 2004, 「적석목곽분 출토 황금장식과 유리제품의 원류」 『신라문화』 23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이한상, 1995, 「5~6세기 신라의 변경지배방식 -장신구 분절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33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2014, 「신라 복식의 변천과 그 배경」 『신라문화』 43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2012, 「신라장신구의 정치적의미-경주 황오동 41호분 모관 발굴에 즈음하여」 『내일을 여는 역사48』 내일을 여는 역사.
 전호태, 2015, 「고구려 복식문화 연구론」 『한국사연구』 170집, 한국사연구회.
 -----, 2005, 「4~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와 동아시아 문화」 『고구려발해연구』 21집, 고구려발해학회.

- 주보돈, 2016, 「새로운 지배질서의 모색」 『신라의 건국과 성장』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2권, 경상북도.
- , 2016, 「마립간기의 출범과 부체제」 『신라의 건국과 성장』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2권, 경상북도.
- , 2002, 「신라국가 형성기 김씨족단의 성장배경」 『한국고대사 연구』26호, 한국고대사학회.
- , 2006, 「신라의 部와 部體制」 『역사와 세계』 30집, 효원사학회.
- , 2006,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 신라의 한국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동북아역사논총』11호, 동북아역사재단.
- 김용성, 2016, 「사로국에서 신라로」 『신라의 건국과 성장』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2권, 경상북도.
- , 2010, 「신라 마립간시기의 왕릉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 , 2016, 「마립간기의 지방지배」 『신라의 건국과 성장』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2권, 경상북도.
- , 2006, 「적석목곽묘의 새로운 이해」 『고고학연구 공개강좌』 (재)영남문화재 연구원.
- 박보현, 1995, 「위세품으로 본 고신라사회의 구조」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 이희준, 2010, 「황남대총 남분 내물왕릉설의 제기 배경과 개요 그리고 의미」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 이송란, 2016, 「의성 탑리 고분 I 광 출토 금동관의 계통과 상징성」 『한국고대사 탐구』 24집,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 2002, 「新羅冠의 成立과 始祖廟 祭祀」 『미술사학연구』 235권, 한국미술사학회.
- , 2003, 「황남대총 신라관의 기술적 계보」 『한국고대사연구』 31집, 한국고대사학회.
- , 1994, 「신라 고분출토 공예품에 보이는 외래요소의 연원 - 식리총 금동식리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03권, 한국미술사학회.
- 이종서, 2017 「신라 진골 성씨의 성립과 기능 변화」 『역사와 현실』 105호, 한국역사연구회.
- 강종훈, 2016, 「나제동맹의 결성과 가동」 『신라의 건국과 성장』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2권, 경상북도.
- , 1994, 「신궁의 설치를 통해 본 마립간기의 신라」 『한국고대사논총6』 한국고대사회연구회.
- 김현숙, 2016, 「부체제의 전개와 고구려」 『신라의 건국과 성장』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2권, 경상북도.
- 김재열, 2010, 「5-6세기 신라 慶山地域 政治體의 冠」 『신라사학보』 20권, 신라사학회.
- 전덕재, 2010, 「신라상대 왕궁의 변화와 종묘」 『신라문화』36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 2000, 「6세기 초반 신라 6부의 성격과 지배구조」 『한국고대사연구』 17집, 한국고대사학회.
- 박성현, 2011,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82호, 한국역사연구회.
- 조진숙, 2010, 「신화를 통해 본 고구려 관모의 상징성」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권, 한국디

자인문화학회.

- , 2004,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장신구에 관한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17집, 고구려발해학회.
- 양정석, 1998, 「신라 마립간기 왕의 통치형태 - 눌지마립간기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15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 1996, 「신라 마립간기 왕권강화과정과 지방정책」 『한국사학보』 1권, 고려사학회.
- 나희라, 2005, 「신라의 건국신화와 의례」 『한국고대사연구』 39집, 한국고대사학회.
- 홍승우, 2014, 「浦項中城理新羅碑를 통해 본 신라의 部와 지방지배」 『한국문화』 66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 옥재원, 2016, 「신라 마립간기 지역지배의 양상과 금공위세품의 사여」 『신라문화』 47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노태돈, 1988, 「5세기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 시민강좌』 3, 일조각.
- 이경희, 2009, 「고신라 금속공예에 대한 연구동향」 『CHINA연구』 6권, 부산대학교중국연구소.
- 권영필, 1997, 「신라공예의 대외교섭」 『신라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 김원룡, 1979, 「신라금관계통」 『조명기박사회갑기념 불교사학논총』 동국대학교 출판부.
- 민병훈, 2008, 「북아시아와 고대한국문화- 신라금관의 북아시아적 요소를 중심으로」 국립경주박물관 국제학술심포지엄 '신라 문화와 서아시아 문화'.
- 이창현, 2006, 「江陵地域의 新羅化 과정-고분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25권, 한국문화사학회.
- 정등원, 1991, 「동래 복천동 고분군의 조사내용과 그 성격」 『한국민족문화』 4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Correlations between the Silla Crown and the Politics of Silla during the Maripgan Period

Kim, Jeong Hee
Dep. of Korea history and Korea culture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The Silla Crown that had been made during a certain period of Maripgan in Silla was developed into a standardized crown called the Silla style after several changes not found in other countries.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processes and meanings of its standardization in the context of changing politics in Silla to ensure its true understanding by growing out of the old researches focused on its origin and ornamental techniques. This study focused on changes to Silla's relations with Goguryeo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Kim family's royal authority as two factors to have huge impacts on the politics of the kingdom during the Maripgan period. The study examined aspects of politics in Silla around the changes of Silla Crown according to the changing relations between Silla and Goguryeo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Kim family's royal authority that led those changes.

The first period witnessed the debut of Silla Crown made in the Goguryeo style. It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growth of the Kim family's force that had opened the Maripgan period and with the close ties between Silla and Goguryeo during the Naemul and Silseong of Silla. There was gold behind the growth of the Kim family's force, which was fully reflected in the myth of Kim Al-ji and gave birth to the golden culture represented by golden crowns during the Maripgan period. Silla's overdependence on Goguryeo and its internal power struggle led to the acceleration of its subordination to Goguryeo and resulted in the creation of Silla Crown in the Goguryeo style. The second period witnessed the formation of a basic frame for Silla Crown in the Silla style, which grew out of the Goguryeo style and adopted the three-layer branch type, and the full-blown bestowal of gilt bronze crowns to local areas. Good examples of Silla Crown during this period are the ones that were excavated at the Daechongnam tomb in Hwangnam and had

a broad spectrum. They give a good idea about the changes to the style of Silla Crown. These changes to the Silla Crown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independence policy pushed forward by Nulji Maripgan during the period.

The third period witnessed the creation of Silla Crown with three right-angled branch type on the middle and two bent branch type called a deer horn type on the sides, and thus the completion of the typical form of Silla Crown. During the period, Silla separated from Goguryeo and carried out all sorts of reform on the war basis to prepare for war against Goguryeo. The Kim family's royal authority was further reinforced by such ceremonial events as the king's memorial services for the 1st king of Silla and the construction of Singung. The investigator estimated the functions of a golden crown related to ceremonies and understood that the icons on the Silla Crown depicted the myth of Kim Alji, focusing on frequent ceremonial event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Singung during the Soji Maripgan period. The golden Silla Crown was put on by kings during all kinds of ceremonies and became a very political crown that not only demonstrated the identity and superiority of the Kim family's royal authority, but also showed that Silla, which used to be subordinate to Goguryeo during the early years of Maripgan, grew into a confident state to go against Goguryeo.

The findings about the changing process of Silla Crown by the period show that these political factors and changes altered its developmental process and thus the content that they wanted to put on the crown and caused changes to its forms accordingly.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illa Crown was a very political crown that not only reflected political demands during the Maripgan years fully by the period, but also fulfilled its functions enough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Such research efforts will help to understand the Silla Crown within a more macroscopic framework of Silla's politics beyond the old microscopic researches focused on its styles, thus making some contribution to the synthetic analysis of its styles and meanings.

Key words : Maripgan, Maripgan period, Silla Crown, the golden Silla Crown, gilt bronze crown, the changes of Silla Crown, Naemul, Silseong, Nulji, Soji, Singung, the myth of Kim Alji, the Kim family's royal authority, the changing relations between Silla and Goguryeo.
